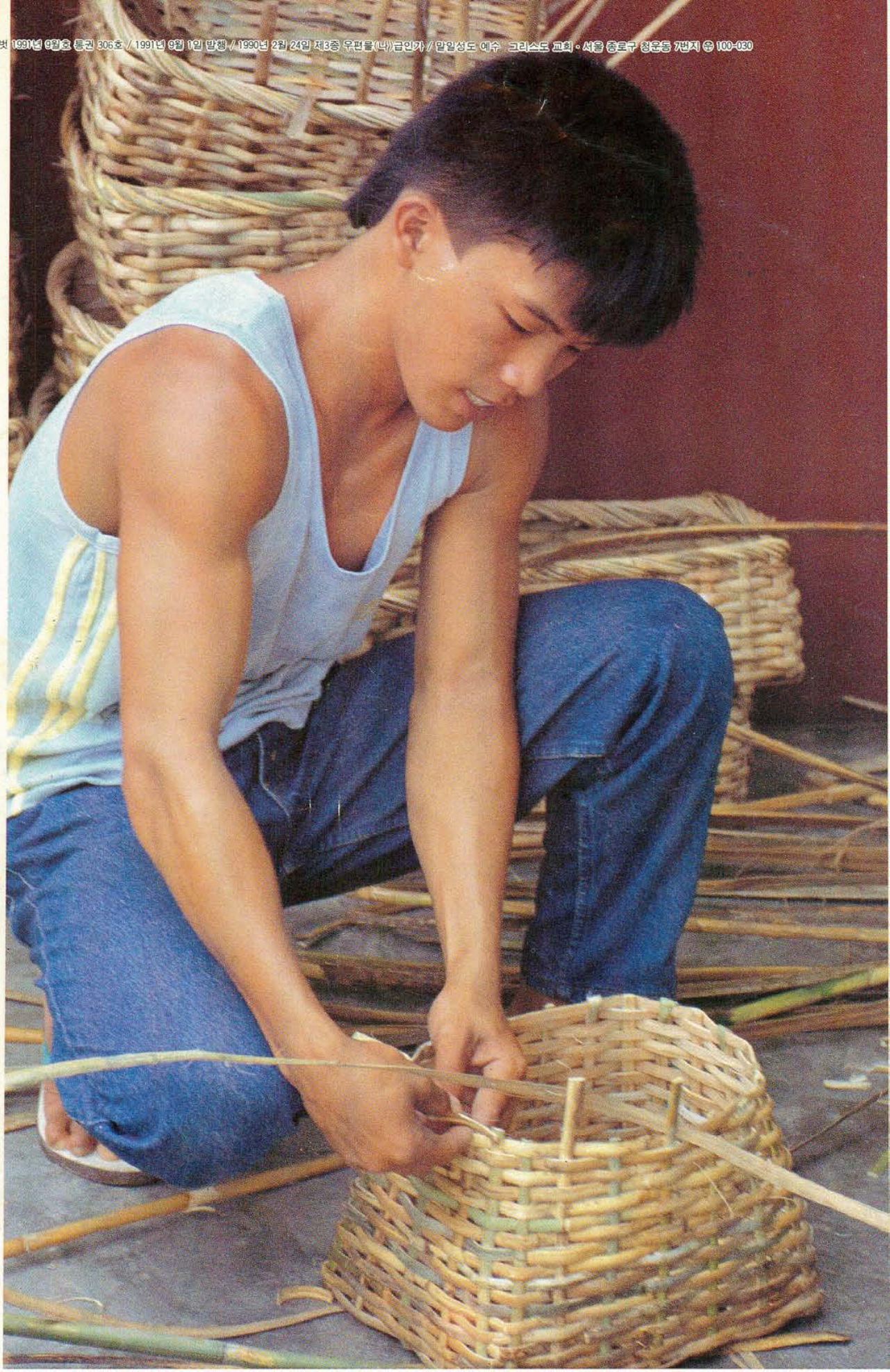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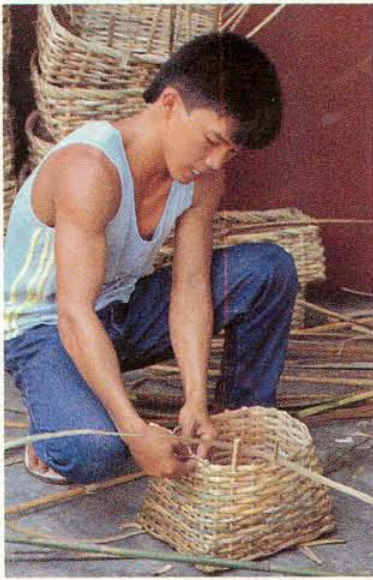
1991

6

성도의 벗

만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표지 설명 —

고리 버들나무 바구니를 짜고 있는 이 젊은이는 교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 조합에 속해 있다. 이 조합원들은 기도하고 경전을 읽은 다음 하루 일과를 시작하며, 녹음된 찬송가를 들으면서 작업을 한다. "필리핀 성도들", 8쪽 참조
표지 사진촬영 : 마빈 케이 가드너

— 어린이란 표지 설명 —

필리핀 바기오 섬의 잰 미셀 카브리토(4세)는 가정의 밤에서 예수님에 대해 배운다. 찬송과 기도를 하고 나서 서로 포옹하고 다과를 나눈다.
사진촬영 : 마빈 케이 가드너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가족 기도의 축복"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2
필리핀 성도들 : "믿음의 백성들" 마빈 케이 가드너	8
라드밀라 라노비치 : 스스로 발견함 케네스 에스 로저슨	22
온화한 가르침 마르더 맥팔런 와이저	26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워드 시 맥팔런	29
"대수롭지 않던 성구" 킴 알 버닝햄	30
예수님이 살았던 땅, 제1부	34
루이스 알베르토 페라조 네스터 쿠베르토	46

청 소 년 란

당신은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33
"지혜로운 길" 질 해밍	44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사랑의 발전	25
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희색곰을 만난 경험	
말린 알 리버트 회장	65
교회 및 지역 소식	66

어 린 이 란

부지런한 브리감 켈렌 리스	50
함께 나누는 시간 : 하나님에게 순종한 종들	
로럴 롤핑	53
베나민 왕의 대 보니 델즈루드	56
친구가 친구에게 : 로버트 이 색클리 장로	60
재능있는 친구들	62
심심풀이 로베르타 페어울	64

1991년 9월호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태프트 벤슨, 고든 비 헝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벵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크트

교문: 렉스 디 피네가, 진 알 쿡, 존 피 코르버그, 로버트 이 헬즈

통 권: 제306권, 제28권, 제9호
등 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1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출판물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1989 320

Printed in Korea 9/91

애독자 편지

편팔

리아호나(스페인어)를 편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아호나는 다른 모든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과테말라에서도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일성도 청소년이며, 저와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전 세계 방방 곡곡에 있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습니다.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저의 간증이 강화될 수 있으며 또한 상대방도 저의 편지를 통해 간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저는 리아호나와 각국어로 출판되는 교회 잡지를 통하여 세계 각처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성명, 나이, 주소, 전화 번호, 그리고 취미 등을 적어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많은 친구들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편지나 진화를 통해 친구를 사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나 로드리게즈

과테말라

에스퀼틀라 스테이크

모델로 와드

편집 노트: 회원들이 보내오는 많은 편팔 요청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빛 관리 지침에는 “편팔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목록을 출판해서는 안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지침은 회원들의 성명과 주소를 공개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으로부터 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지식의 보화

아내와 저는 서로를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 및 총관리 직원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가정의 밤을 갖고자 했으며, 리아호나에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위대한 지식의 보화를 찾았습니다. 마치 매달 영의 양식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중요한 잡지를 구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리아호나가 물론경과 성경, 교리와 성약 및 기타 교회 서적들을 보완해 준다는 것을 압니다.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총관리 역원과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는 기사와 이야기를 제공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칼로스 에이 로차,

안나 세실리아 데 로차

과테말라

엘몰리나 스테이크, 제 11와드

아주 잘 조화됨

1990년 11월호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복음과 그렇게 조화가 잘되는 잡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메시지들이 특별히 저를 위해서 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서류철에 매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안나 클라우디아 다 실바(18)

브라질 상우 파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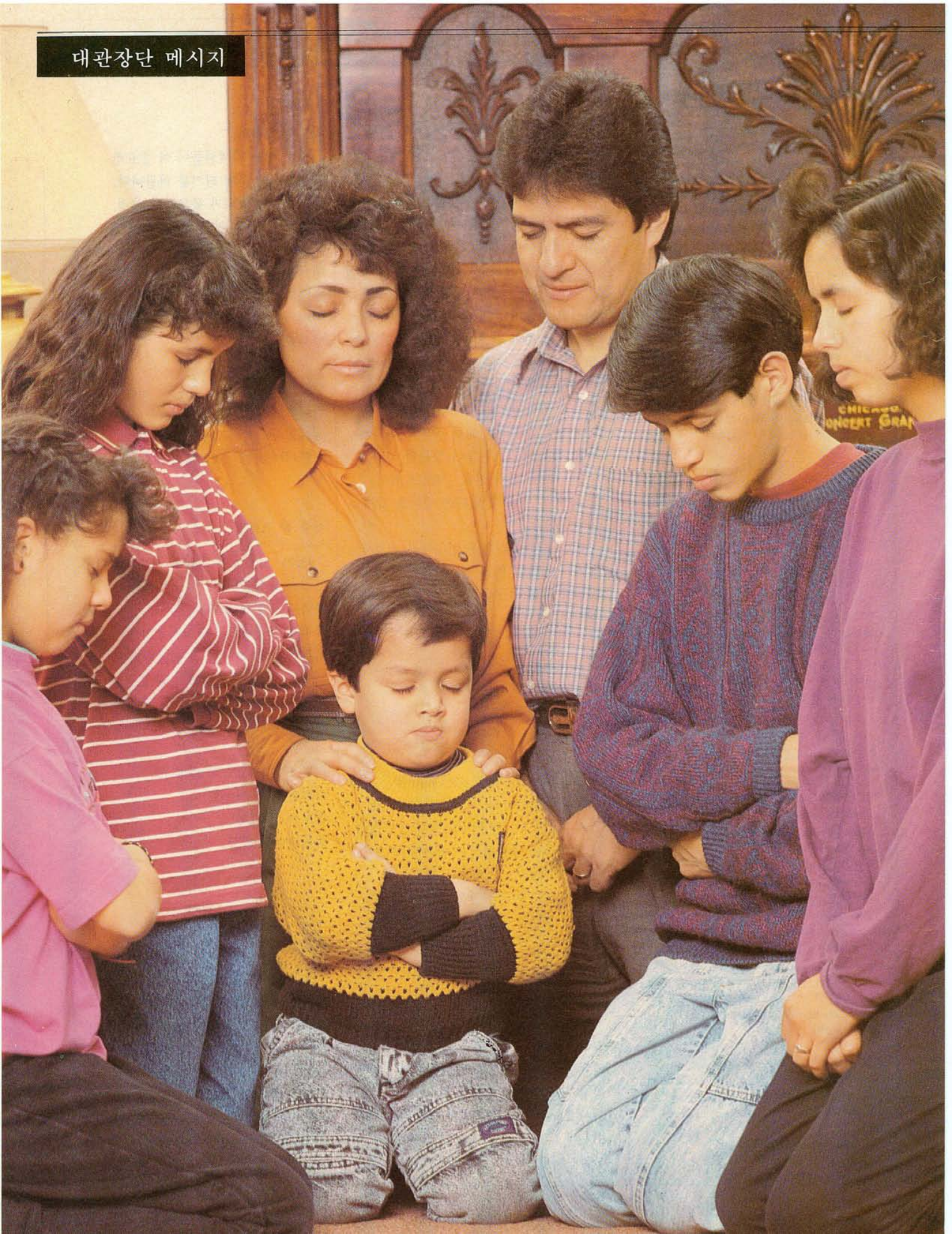
산호세 도 캄포

새틀라이트 와드

편집 노트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편지와 기사와 이야기 등을 기다립니다. 성명과 주소, 와드/지부 및 스테이크 지방부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신 편지를 참으로 기쁘게 받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사를 보내 주시길 기대합니다.
보내실 곳: 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성도의 빛 담당자 앞

대관장단 메시지



가족 기도의 축복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사

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디모데후서 3:1~4).

우리 시대에는 정직, 덕성 및 성실에 관해 새롭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다운 문명에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덕성이 우리 생활에 깊이
뿌리내릴 때만이 시대의 흐름은 변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점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하는 일을 인도해 주시도록 매일
간구함으로써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옛날처럼 가족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질병을 막아 줄 기본적인
처방입니다.”



“기도드리는 가족은 더욱
 훌륭한 사회의 희망입니다.
 기적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한 세대 안에 기적을
 이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기적

저는 옛날처럼 가족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질병을 막아 줄 기본적인 처방이라고 제안합니다. 하루 아침에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한 세대 안에 기적을 이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 두 세대 이전에는, 전세계 어느 곳에서나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가족 기도를 하는 것이 마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습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결코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용단이나 아름다운 직물, 또는 아름답게 장식된 벽이나 가구보다도 더욱 훌륭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줄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단순한 행동에는 바울이 “교만하며... 조금하며 자고하며”라고 표현한 태도와는 다른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무릎을 꿇는 그 행동에는 바울이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라고 묘사한 성품을 없애 주는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께 말씀드리는 그 행동에는 불경한 언행 및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려는 경향을 극복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삶과 화평과 그밖의 모든 축복에 감사를 드릴 때에, 거룩하지 않으며 감사하지 않기 쉬운 습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 서로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릴 때, 가족은 서로

고마움과 존경심과 애정을 새로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교성 59:7)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교성 59:21)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 및 억압받는 사람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키우게 되며,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돌보려는 소망도 키우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 주기 위해 손수 뭔가를 하려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께 그러한 이웃을 도와 달라고 간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전념한다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한 기적은 가족이 매일 기도를 드리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그들이 사는 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보존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이 매일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마음에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 주는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의 대형 간판에 “기도하는 민족은 평화를 누린다”고 쓰인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가족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를 드리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가족 기도를 드리면 회개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는...
 결점을 고백하며 주님의
 축복이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에게 임하도록 간구하게
 됩니다.”



갖게 되므로 가정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서로의 결점을 고백하며 주님의 축복이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에게 임하도록 간구하게 됩니다.

저는 오래 전에 작고하신 분의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십이사도 중 한 분이신 헨리 디 모일(1889~1963) 장로의 부친이신 제임즈 에이치 모일 형제님은 가족 기도에 관하여 손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승인을 받기 위해 무릎꿇고 기도드리기 전에는 잠자리에 든 적이 없단다. 훌륭한 가정에서도 의견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기도로써 사라지게 된단다... 가족 기도는 사람들이 더욱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 주며 화합, 사랑, 용서 및 봉사하는 삶으로 인도해 준단다.”

오래 전에 우리 교회 회원들이 아이오와주에서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 주었으며, 미국 정부의 군대가 솔트레이크 계곡에 오던 때(1857~1858년) 교회 회원들을 도와 준 우리의 훌륭한 친구인 토마스 엘 케인 대령은 1872년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다시 서부로 왔습니다. 그들은 브리감 영과 함께 세인트 조지로 여행하면서 매일 밤 교회 회원들의 가정에서 머물렀습니다. 케인 대령의 부인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계신 부친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행 중 머물렀던 곳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곧 기도를 드렸으며 아침 식사 전에도 다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물론들은 함께 무릎을 꿇었으며, 그 가정의 가장이나 초대받은 손님이 큰 음성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찬양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으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연히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했으며, 각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에 익숙해지면서 이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개척자이신 우리 선조에게 이토록 중요했던 가족 기도를 하는 습관을 최대한 발전시켜 나아가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가족 기도를 태버나클에서 개최되는 모임과 마찬가지로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매일 드리는 기도로부터 얻은 신앙으로 그분들은 잡초를 뽑았으며 말라 붙은 땅에 물을 부었고, 사막에 꽃이 만발하게 했으며 가족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서로 평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 이름이 영원히 남아 있게 했습니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기도드리는 가족은 더욱 훌륭한 사회의 희망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이사야 55 : 6)

저는 일본에서 봉사하는 한 젊은 선교사가 한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지 여러 달이 되었지만 이 나라 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낮이면 좌절감에 휩싸이고 밤이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에게 편지를 써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아침 식사하기 전에 무릎 꿇으며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 및 억압받는
자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및
존경심을 키우게 되며,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돌보려는 소망도 키우게
됩니다.”

너를 축복해 주시도록 간구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단다.
우리는 기도에 금식을 더했으며 네 동생들은 “하나님
아버지, 일본에 있는 형(오빠)을 축복해 주셔서 그 나라
말을 잘 배워 부름받은 일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도와
주세요”라고 기도한다.’”

이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다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가족들의 기도에 저의
기도를 더하며 가족들의 금식에 저의 금식을 더할
것입니다.”

그가 다시 노력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사를 받아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족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가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이 모두 참된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회를 강화시키며 살기에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가정 생활의 미덕을 강화시키며
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옛날처럼 다시 가족 예배를 이 지상에 널리
퍼뜨린다면, 우리를 파멸시키는 심각한 문제들도 대부분
한 세대 안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 예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성실, 상호 존중 및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저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가족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보상받게 되리라고
간증드립니다. 그 변화가 쉽게 눈에 띄지 않으며 매우
미세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기”(히브리서 11:6) 때문입니다.

회원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 앞에 이러한 가족 기도의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도록 격려하는
일에 충실하기를 기원합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여러분은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들을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1. 사도 바울은 우리 시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디모데후서 3:1)
2. 여러 가지 참된 덕성을 생활에 깊이 뿌리내릴 때
만이 우리 시대의 흐름도 변경될 것이다.
3. 가족 기도는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무서운
질병을 막아 줄 기본적인 처방이다.
4.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궁핍한 자를
기억하며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이 단합되고
진리를 배우며 사랑과 존경심을 갖게 된다.



필리핀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마빈 케이 가드너

천

정 위에 매달려 있는 선풍기는 빙빙 돌아가고 있지만, 습기를 잔뜩 머금은 대기는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비록 예배당 한쪽 면에 있는 접개식 창문들을 모두 활짝 열어 놓기는 했으나 예배당 안을 식혀 줄 미풍조차 불어 들어오지 않는다.

주차장은 거의 텅비어 있으나 마닐라 파테로스 와드의 이 조그만 예배당은 성도들로 가득하다. 어떤 성도들은 걸어왔고, 어떤 성도들은 영업용 지프 혹은 3륜 자전거(사이드카가 부착되어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말함)를 타고 왔다.

이곳의 감독은 물질적인 소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회원들은 대부분이 매우 가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성도들과 집전을 해보면 모두가 자신들이 축복을 받았으며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성찬식이 시작되고, 한 자매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비에(모로나이사 7:47) 대해 말씀을 전한다. 다음으로, 한 청년이 야렛인의 멸망에 관해 이야기를 한다. 그 청년은 이렇게 말한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없으면, 인간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모로나이사 7:44절 참조)

우리에게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매 하나가 일어서서 찬송가 지휘를 한다. 피아노 반주자도 없지만, 그녀가 먼저 노래의 첫 소절을 선창한다. 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합창한다. “풍성하신 주 은혜로 나 살기에 받은 것 많아 나누며 나 살겠네”(찬송가 138장)

자연 재해와 사회적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누는 것이 왜 그처럼 중요시되고 있는가? 이 성도들은 무엇을 받았으며, 또 그들이 이에 대한 답례로 어떠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그 대답은 간명하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훌륭한 신앙을 축복으로 부여받은 것이며, 또한 그들의 생활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된 것이다. 필리핀 성도들은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 거리낌없이 간증을 함께 나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제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말루 독타는 기도하면서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다. 여전히 낚잡을 수 없이 몰아치는 태풍이 그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 복적대는 이 조그만 집을 무너뜨릴 위세였다. 정답기만 하던 바다가 어느새 광란하는 이방인이 되고 만 것이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몇시간 전에 말루는 가족과 함께 소르소공 시 근처 바닷가의 니파 팜 나무로 된 작은 집을 버리고 이곳으로 피신해 왔다. 그들은 가슴까지 차는 차가운 물과 진흙 더미를 간신히 헤쳐 나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온 것이다.

밖은 태풍으로 인해 소란이 계속되는데, 말루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 갑자기 대학 노트 한 권이 생각났다. 어떻게 그것을 빠뜨리고 올 수 있었던 말인가? 노트 표지 안에는 그녀가 교회에서 받은 장학금이 들어 있었다. 그 돈으로 마지막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돈이 있어야 시험을 치르고 졸업할 수가 있다. 그것이 없다면 졸업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데 도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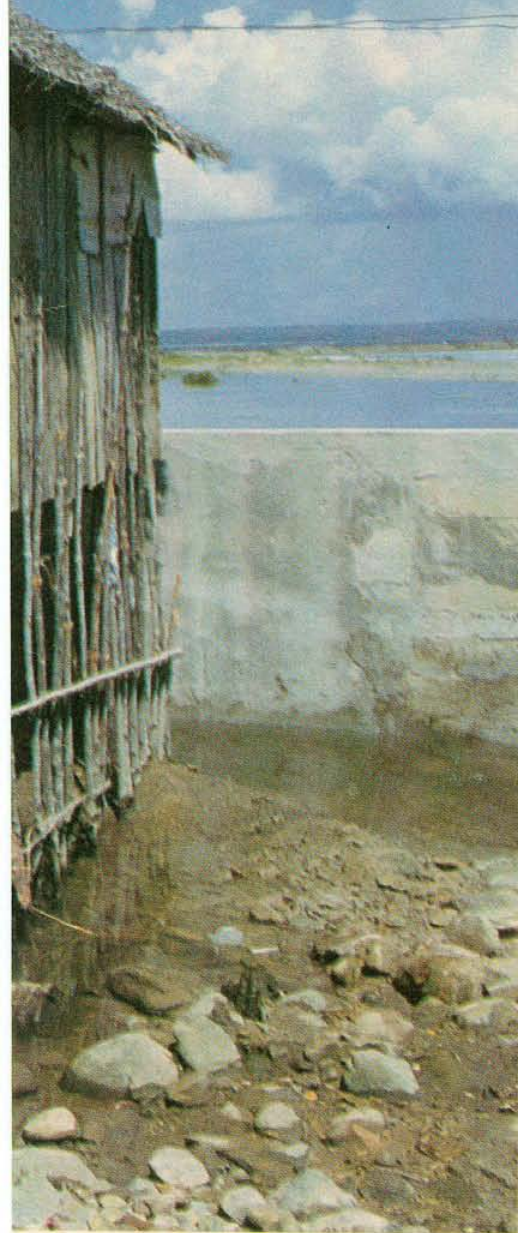
난스 바론다, 18살, 카브카벤 지부에서 찬송가를 지휘하고 있음. 비탄 반도에 있는 이 집회소는 마닐라 만과 코레기도르 섬을 내려다 보고 있다.





(상) 샹페드로와 에밀리 독타 (좌) 파테로스 와드에 다니는
 및 그들의 가족은 태풍이 한 가족이 일요일 모임이
 예전에 살던 집을 휩쓸고 간 끝난 후 삼륜 오토바이를
 후 이 새 집을 지었다. 말루는 (왼쪽에서 세번째) 타고 집으로 가고 있다.
 장자이다.





주겠다고는 그녀의 소망은 하나의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게 된다.

“저는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듯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은 주님의 것입니다. 만일 그 돈이 없으면 제 대학 졸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계속해서 간구했습니다.”

새벽 두 시에, 남자들이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들은 해변가에 남아 있는 집이라곤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라고 말루는 이야기한다. “우리가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것들로써 우리의 목숨과 입고 있던 옷가지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업료를 잃은 것에 대해 안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돈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래와 진흙 속을 뒤지며 찾아낼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구해 내려 했다. “제 사촌 한 명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것은 네 노트구나!’ 저는 달려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젖기는 했어도 돈은 그 안에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회고하면서 말루는 다시 눈물을 흘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저의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그 밖에 말루의 가족이 찾아낸 것으로는 돌도 없이 소중한 사진 몇 장뿐으로 그것들은 부모님이 젊은 시절에 찍은 사진, 침례받던 날 흰 침례복을 입고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마닐라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던날 하얀 옷을 입고 찍은 사진 등이었다.

1987년 태풍 이래, 말루는 회계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선교 사업을 마쳤다. 그리고 말루의 가족은 다른 곳에 대지를 구입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재정 및

자재를 제공받아 해변가 같은 장소에 새 집을 지었다. 벽에는 물론 얼룩진 사진들과 그녀의 대학 졸업 학위증이 걸려 있다. 말루는 이렇게 말한다. “그 일은 저희에게 하나의 기적이자 위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파세이 시에 사는 콘솔라씨온 필로벨로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 결혼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미신을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출산 전 검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첫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콘솔라씨온 자매는 울기 시작한다. “만일 제가 당시에 교회 회원이었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 그녀는 상호부조회를 통해 정수법, 위생, 영양, 응급 치료 및 면역 등에 대해 배웠다. 콘솔라씨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서 자녀들과 저 자신과 가족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후에 태어난 일곱 자녀들은 건강하다. 현재 그녀는 와드 가사 담당 지도자로서 자신이 배웠던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가족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업체에서 조리를 담당하고 있다.

“무슨 음식점이 이렇습니까?”

호벤시오 일라간은 그의 집 문을 두드린 선교사들에게 그저 장난이나 쳐 볼 생각이었다고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면서 빙그레 웃는다. “저는 그다지 종교심이 돈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 이후로 호벤시오는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엘마서를

읽으면서 받은 느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성신이 제 마음속에 간증을 전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벤시오와 세나이다와 침례받을 연령이 된 여섯 자녀들이 함께 침례받을 날짜를 정했다.

그런데 침례받기 3일 전에 “저는 사업 관계로 옛 술 친구 몇 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호벤시오는 그 일을 자매 선교사들에게 고백했다. “그분들이 실망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예정대로 일을 진행하자고 했으며, 아내와 자녀들이 먼저 침례받고 저는 나중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을 관리하는 구역 지도자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것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침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깊이 느껴 흠없이 생활코자 무진애를 썼습니다.” 일 주일 후에 그들은 모두 침례받았다.

침례받은 지 얼마 안되어 호벤시오는 청남 회장이 되었으며, 세나이다는 상호부조회 회장이 되었다. 그 이후로 호벤시오는 지역 대표와 선교부장으로 봉사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직책에 부름받아 봉사했다.

일라간 가족은 자신들의 생활이 여러 면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다. 호벤시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희는 컴퓨터 데이터 입력 서비스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감 날짜에 맞추려면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후로는 일요일에는 일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고객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 육일 근무해 벌어들인 수입이 주 칠일 동안 시간외 근무까지 하면서 벌은

소득보다 훨씬 나왔습니다.”

그후 호벤시오는 서비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일요일에 음식점 문을 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맥주나 커피도 판매하지 않았으며, 담배라든가 지혜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절대로 팔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무슨 음식점이 이렇습니까?”라고 말하며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음식점을 가족적인 분위기로 운영했으며, 그것을 통해 많은 고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수년 후, 그들은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그 음식점을 매각했다. 호벤시오는 마닐라 소재 교회 배부 부상으로 임용되었다. 후에 그는 회원 통계 기록과 정보 처리부에서 근무했으며, 지금은 지역 자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복음은 남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았습니다.”라고 일라간 자매는 말한다. “복음으로 인하여 전에는 전혀 몰랐던 화평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적시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일라간 형제의 자녀 중 여럿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성전에서 결혼을 했다.

페르라, 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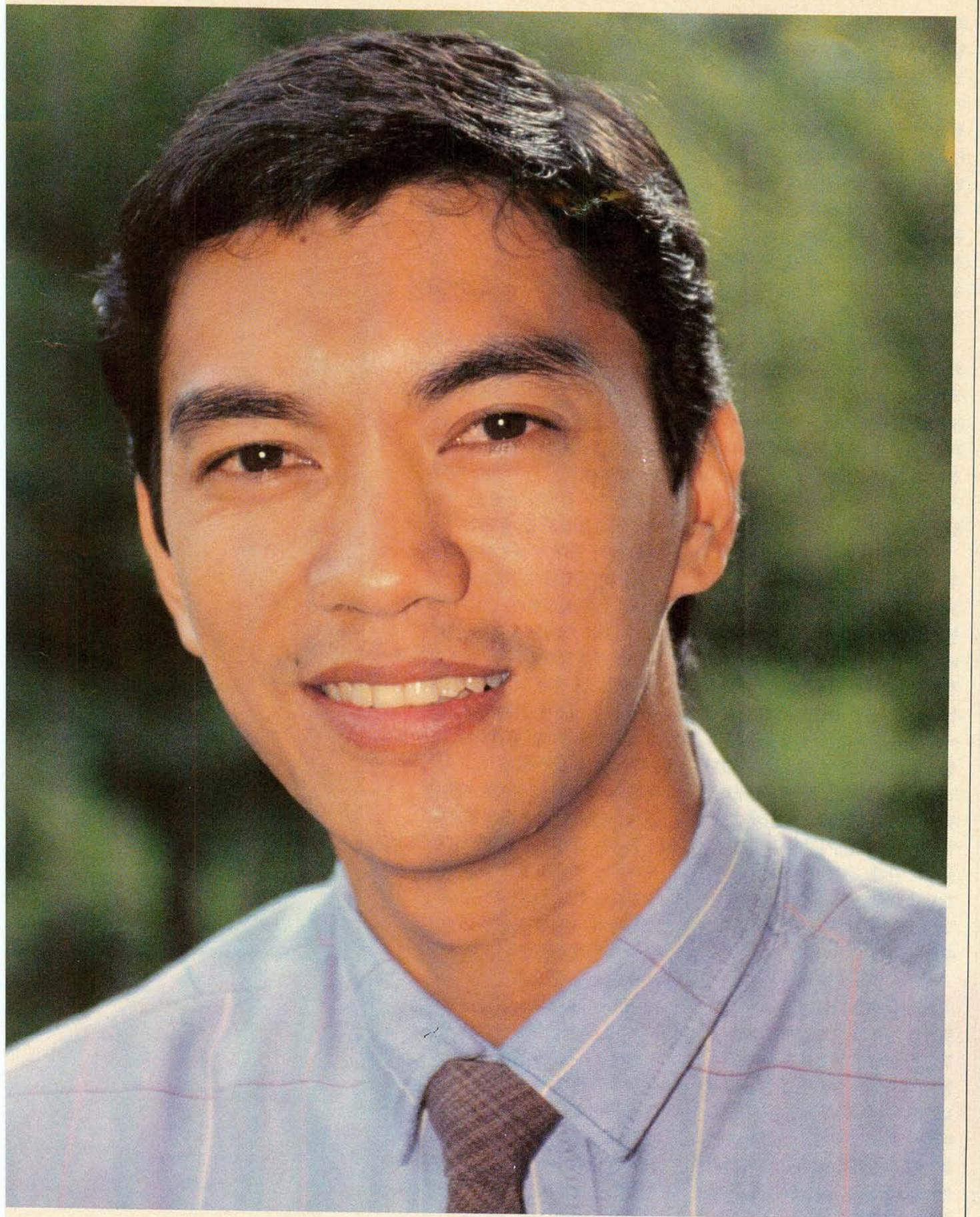
페르라는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고 난 뒤 침례받기를 원했으나 부모님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 페르라는 당시 28세였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었으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페르라는 자신의 침례복을 손수 만들어 침례를 받았다.

이번에는 십일조를 어떻게 내야 할지가 두번째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상) 콘솔라씨온 필로벨로는 와드 기사 담당 지도자이며, 남편 이시도르는 축복사이다.

(중앙) 호벤시오와 세나이다 일라간은 필리핀 출신의 부부로서는 두번째로 선교부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았다. (우) 린도 카시닐로는 충실하다는 것은 “순종하기 위한 길을 찾는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기타 회원들이 마운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으로부터 보호받은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페르라는 오랫동안 국민학교 교사로 일해 왔는데, 가족 가운데 유일한 생업 종사자로서 수입의 전부를 늘 아버지께 드렸다. 그리고 이제 와서 월급 봉투를 아버지에게 드리지 않거나 또는 아버지에게 십일조를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다. 대신에 페르라는 방과 후에 사람들이 입을 편물을 시작해서, 교사 일과 편물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십일조로 편물을 통해 버는 소득 전체를 바쳤다.

마닐라에서 선교 사업을 마친 뒤, 페르라는 교단으로 돌아왔으며, 역시 국민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던 47세의 노총각 루시아노 데 구즈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복음을 공부하고 나서 침례를 받았다. 둘은 결혼해서 지금은 룻과 에스더라는 어린 두 딸을 두고 있다.

침례받은 지 팔 년 만에 루시아노는 링아엔 스테이크 부장으로 부름받았다. 대부분의 필리핀 교회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데 구즈만 부장 역시 자동차와 전화가 없으며,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해 대중 교통 수단도 편리한 대로 이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즈만 형제는 자전거를 한 대 가지고 있다. 59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구즈만 부장은 자전거를 타고 모임에 참석하며, 왕복 3시간이나 걸리는 곳까지 간다. 그는 손수 점심 도시락을 갖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회원들에게 페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단히 혼잡한 고속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일은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으나, 데 구즈만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주님께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한번은 대형 버스가 소형 승합차를 추월하려는 그 중간에 자전거를 탄 구즈만 부장이 끼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두 제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그때 마치 거센 바람이 저를 들어 올려 버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아 주는 듯했습니다. 자전거도 망가지지 않았으며, 저 역시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더군요. 저 또한 놀랐죠!”

“저는 아기 소리를 들었어요.”

세부 시에 있는 모나레스 가족의 단칸 방 집에 가려면 좁고 혼잡하여 마치 미로 같은 골목 길을 지나가야 한다. 이 협소한 방에 들어서게 되면, 맨 처음 눈에 띄는 것이 교회 포스터이다.

조그마한 책장의 선반 한 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새 물몬경이 가득 꽂혀 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선교 사업중입니다.”라고 산토스 모나레스는 설명한다.

모나레스 형제는 노점상인데 가족을 부양하기에 족할 만큼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한다. 아내 홀리타와 함께 처음 성전에 가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홀리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갖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모으는 일조차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모나레스 형제가 병이 들어 오랫동안 앓기까지 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네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여행을 하기에 족할 만큼의 돈을 모았다.

어느 날 모나레스 자매가 여행할 때 먹을 음식을 장만하려고 시장에 갔는데, 누군가가 음식 살 돈을 모두 훔쳐 가고 말았다. 또다시 모나레스 자매는 여행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그렇지만 금식 기금으로 도움을 받아 음식 값을 치를 수 있었으며, 마침내 그들은 1990년 4월, 마닐라 성전에 가게 되었다.





(상) 구즈만 부장이 자전거로 교회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 떠나면서 아내 페르라 그리고 두 딸 룯과 에스더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우) 산토스와 홀리타 모나레스 그리고 그들의 두 자녀인 하젤(14세)과 비센타(20세)는 성전에 가게 되면 "외부 세계의 모든 문제점들을 잊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상)엘렌과 세사르 디쵸스는
마닐라 성전에서 결혼했다.
이 곳에서는 개 언어로
의식이 진행된다.
(좌)로사리오 지부 회원들은
지프를 타고 성전에 가기

위해 새벽 1시에 집을
나선다. 어느 때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회원들은
성전의식을 위해 두세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성전에서 우리는 외부 세계의 모든 문제점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모나레스 형제는 말한다.

딸 비센타(20세)도 그 말에 동의한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곧 사망한 남동생에게 인봉될 때에, 저는 아기 소리를 들었어요.” 비센타는 이것을 그 아기가 의식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였다.

“주님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계십니다.”

린도 카시닐로는 18살 때에 교회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때에는 영어를 거의 할 줄 몰랐다. 그러나 세브아노어로 된 몰몬경이 없었기 때문에 린도는 영어로 된 몰몬경을 읽었다. “내용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읽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해가 갈 때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현재, 그는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 번이나 읽었다. 지금은 영어가 유창하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일 년 이상 그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후 급료가 낮은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카시닐로 형제는 완전한 십일조를 바쳤다. “저는 십일조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보이는 신앙의 표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카시닐로 형제는 독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으로 부름받았다. “저는 일요일 아침 일찍 교회에 가야 했는데, 자명종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는 모기장을 치지 않고 그냥 잤습니다. 그 이유는 모기가 저를 물어서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한 번은 지부 재정 서기와 함께 보고서에 있는 틀린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7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한 적이 있다. 서기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떠나자, “저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를 드리지 않은 점에 대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저는 다시 서류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애나벨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할 당시, 린도는 겨우 자기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밖에 벌지 못했다. 처음에는 같은 교회 회원인 애나벨의 부모님이 선뜻 이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계명을 준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부모님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애나벨은 병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예언자는 가능하다면 어머니는 밖에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한다. “지도자의 말씀에 따라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들은 카히반이라고 하는 남자 아기를 낳는 축복을 받았으며, 현재 린도는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멋진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만으로는 소채원이나 식량 공급원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감독님은, 문제는 소채를 가꿀 장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준수하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린도는 말한다. 그 말씀대로 린도는 다른

방도를 찾아보았다. “저는 나무를 좀 구해 와서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시골로 버스를 타고 가서 자루에 흙을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상자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1990년 지진이 필리핀을 강타했을 때에도, 그들은 쌀과 통조림을 저장해 두었기에 안심을 할 수 있었다. 비록 아파트 건물이 파손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저장했던 식량을 꺼내 활용할 수 있었다.

카시닐로 형제는 다음과 같이 겸손하게 말한다. “주님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계십니다.”

믿음의 백성들

이시도로 비 필로벨로는 스테이크 축복사이자 성전 인봉자이다.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믿음의 동료들이인 필리핀 말일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언급하면서, 필로벨로 형제는 “때때로 저는 크게 놀랄 때가 많습니다.”라고 말한다.

최근까지 그곳에서 지역 회장으로 봉사한 적이 있는 칠십인 정원회의 조지 아이 캐넌 장로는 “필리핀 사람들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며, 또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필리핀 성도들은 교회를 응답을 받기 위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 *

마빈 케이 가드너는 교회 본부 잡지 부편집인으로서 현재 바운티풀 유타 하이츠 스테이크 바운티풀 제 16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복음은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이 조그만 섬나라에 뉴스 거리가 한없이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필리핀인들은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

복음은 이들의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가?

자연 재해

필리핀에는 매년 약 20번씩 태풍이 몰려오는데 그 가운데 몇 번은 문순성 폭우와 바람 및 홍수를 동반한 것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 그 밖에도 이따금 활화산이 터져 파괴적인 용암을 분출하며, 지진 역시 빈번하다. 1988년에는 세 차례에 걸친 강한 태풍과 두 차례의 강진이 6주 동안 필리핀을 강타한 적이 있다.

복음은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 말일성도들의 집회소는 종교를 초월하여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고 피난처를 제공하며 의료 봉사를 해 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이며 영적인 도움을 주는 중심지가 되고 있다.

- 교회는 문순성 홍수로 농작물을 유실당한 농부들에게 종자나 기타 보급품 등을 제공해 왔다.

- 신권 정원회와 스카우트 단원들은 자재를 모아서 지진과 태풍으로 파손된 가옥들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1990년 3월, 심한 가뭄이 들고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 회원들은 비가 내리기를 바라면서 금식을 했다. 다음 날 비가 내렸다.

경제 문제

필리핀 경제가 회복기에 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느리다. 1인당

연간 소득은 미화로 73불에 상당한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회원들의 가장 큰 난제가 무엇이나고 질문하면,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대답이 “생존 문제입니다. 하루 하루 식량을 구하는

문제이지요.”이다. 필리핀인들은 대체로 대가족을 구성하고 있으며, 대가족 구성원들이 종종 한 집에서 살면서 가족 중에 실직을 당한 사람이 있거나 기타 물질적인 필요 사항이 있을 때 서로 돕는다. 이같은 대가족 내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한 명인 경우가 허다하며, 어떤 가족은 이 유일한 수입원이 청소년인 경우도 있다.

필리핀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거의 88%에 달할 정도로 교육열이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 공부가 중요시된다. 그렇지만 실업 문제는 심지어 대졸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복음은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 헌금을 바치는 것을 포함한 금식의 법을 가르치고 있다.

- 모든 와드에서 건강, 영양, 위생, 예산 관리 등 자립에 관한 공과를 가르치고 있다.

- 부부 선교사들이 취업 담당 전문가로 봉사하면서 회원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 준다.

-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지역 사회 및 정부가 주관하는 직업 훈련 과정에 등록하도록 권장하며 심지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위해 장학금도 지급한다.

- 어떤 회원들은 협동 조합을 설립하여 바구니 세공, 목재 가구, 및 콘크리트 블럭 등을 생산하기도 한다.

- 여러 집회소에는 소채원이 있어 회원들의 우선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원에 기술을 가르치기도 한다.

- 집회소에서 꼭 갖추고 있는 품목으로는 재봉틀이 있으며, 상호 부조회 가사 모임에서는 정기적으로 재봉 실습을 한다. 자매들은 가족들을 위해 재봉을 배우고 있다. 몇몇 자매들은 재봉으로 가계 소득을 돕기도 한다.

정치적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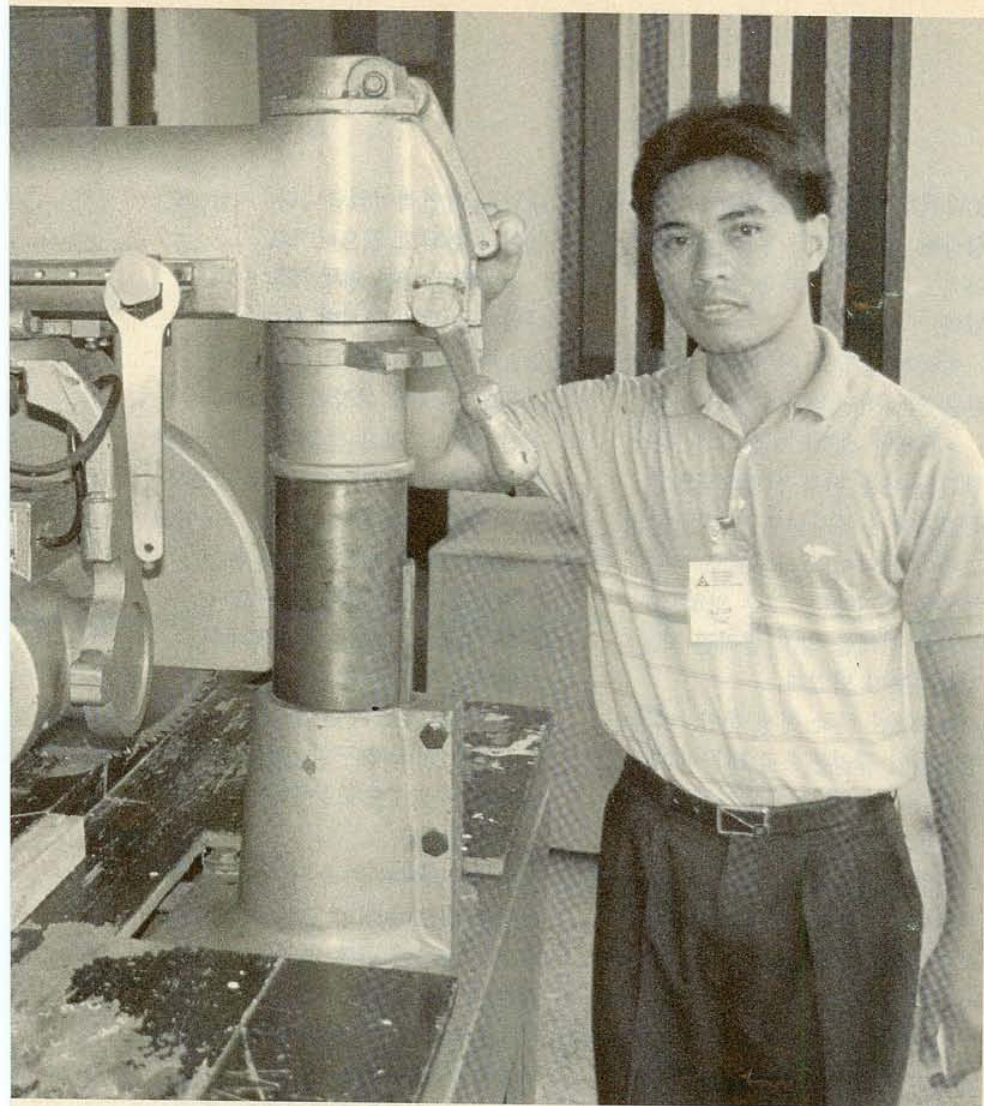
필리핀 제도는 1521년부터 1898년까지 스페인 통치를 받았으며, 그후 1946년까지는 미국의 점령하에 있었다. 독립 공화국이 된 이후에도 필리핀은 정치적으로 불안을 겪어 왔다. 현재까지도 여러 종류의 좌익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반정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복음은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 교회는 성도들에게 국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지지하도록 격려한다. (신앙 개조 제12조 참조)

- 대부분의 회원들은 문제되는 것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으며, 통행 금지나 고속 도로의 검문소 등과 같은 불편한 일에도 순순히 응한다.

- 1989년 쿠데타 기도가 있었을 때, 막탄 섬 주민들은 회원 비회원을 가리지 않고 모두 세부에 있는 집회소로 피신했으며, 그곳의 회원들은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세부의 지역 대표인 레무스 빌라레테는 이렇게 말한다. “이 경험을 통해 회원들과 지도자들 모두가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회원들은 비회원들을 간증 모임에 초청해서 그들의 느낌을 전했으며, 활동이 저조한 몇몇 회원들이 다시 활동화 되었습니다.”



필리핀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 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귀환 선교사로서 현재는
 아내와 아기도 있는 벤자민
 호솔 2세는 22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 과정에
 다니고 있다. 그들 가운데
 15명은 교회 회원이다.

• 회원들은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간증한다. 몇몇 회원들은 무사히 교전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서 회원들로부터 위로받았을 때의 느낌에 대해 말한다. 1989년 12월, 반란군들이 성전 진입을 시도했으나 성전 근무자들이 그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 대신에 반란군들은 잠시 동안 성전 부속건물에 숨어 있었다. 그러한 불미스런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부속 건물의 외부 장식에 약간의 파손이 있었으며, 성전장 숙소가 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성전은 무사했다.

언어 문제

이 작은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87가지나 된다. 필리핀 인구의 거의 반이 상용하고 있는 제2 외국어인 영어는 이들이 서로 단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영어 사용에도 한계가 있으며, 어떤 회원들은 교회에 불참하는 이유로 언어 문제를 들고 있다. 많은 선교사들이, 심지어는 필리핀 출신의 몇몇 선교사들까지도 완전한 의사 소통을 위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한다.

복음은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

• 회원들은 모임에서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도록 권고받고 있다. 흔히 교회의 공과나 말씀은 영어와 그 지방 토착 언어를 함께 사용해 진행된다.

• 물론경과 기타 교회 자료들은 필리핀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8개 언어로 번역된다.

필리핀의 말일성도 숫자는 멀지 않아 100만 명에 이를 것임.

현재 필리핀에는 25만 명이 넘는 교회 회원이 있다. 교회 회원수는 4년마다 배가되고 있다.

1990년대말에 가면 필리핀에는 100만의 말일성도가 있게 될 듯하다.

왜 이처럼 천문학적 증가를 보이고 있는가? 그 주요한 이유로는 필리핀은 이웃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이다. 4세기 동안 스페인과 미국의 치하에 있었던 결과로, 국민의 90퍼센트 이상이 이미 기독교인이다. 또한 지역 회장인 엘 리오넬 캔드릭 장로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영적으로 감수성이 강한 믿음의 백성”이다.

한편 또 다른 이유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필리핀인들의 성품을 들 수 있다. 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모든 회원들에게 우리가 가르칠 만한 비회원 친구나 친척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회원들에게서 구도자를 소개받고 있습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이자 전에 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했던 조지 알 힐 3세 장로는 “우리는 가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이처럼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복음 선교사들은 그들 시간의

30퍼센트까지를 재활동화 및 지도력 향상에 사용하도록 부탁받는다. 아직도 침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배경이 존재한다.

-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참전 용사들 지부가 조직되었다. 적십자에서 봉사하던 말일성도 막신 그림이 애니시타 파하르도 부인에게 복음을 소개했다. 그후 파하르도 부인은 침례를 받고 필리핀 최초의 말일성도가 되었다.

- 1953년 한국 전쟁 동안, 미국인 병사들이 필리핀으로 되돌아가서 참전 용사 지부를 재조직했다.

- 1955년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복음 전파를 위해 필리핀을 헌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제한 때문에 그 때까지 선교 사업이 시작될 수 없었다.

- 1961년 4월 28일 고든 비 힝클리 장로가 마닐라 소재 포트 맥킨리 전물 장병 국립 묘지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선교 사업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다. 일주일 뒤 선교사들이 도착했다. 현 선교 부장인 루벤 가피스는 필리핀 초대 교회 회원들 중 한 명이다. 루벤은 이렇게 말한다. “힝클리 부대관장님께서서는 국립 묘지에서 가진 기도에서 많은 필리핀인들이 침례를 받아 이곳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 간구는

대단히 예언적이었습니다. 지금 그 일이 성취되고 있으니까요.”

- 면적이 30만 평방 킬로인 이 나라에는 현재 12개의 선교부가 있으며, 1,650 명의 복음 선교사 가운데 1,250명 이상이 필리핀 출신이다. 그리고 선교부장 중 5명이 필리핀 출신이며 7명의 지역 대표도 모두 필리핀인이다. 40개의 스테이크 중 39개 스테이크가 필리핀 출신 스테이크 부장의 인도를 받으며, 또한 선교부 산하에 있는 60개의 지방부는 모두 필리핀 출신이 지방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현재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프로그램에 등록된 숫자는 15,000 명이다.

- 마닐라에는 가족 역사 사업 센터가 있으며 거의 모든 스테이크와 몇몇 지방부에 가족 역사 도서관이 있다.

- 80명의 부부 선교사가 열 두 선교부에 배치되어 경험이 부족한 신참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교회는 현재 표준 집회소를 지을 비용의 일부로 필리핀 고유 모형을 한 소규모 집회소를 건립중인데, 교통요금이 비싼 관계로 성도들은 그들의 집 가까이에서 지을 수 있는 이같은 모양의 집회소를 환영한다. *

(우) 여러 내국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다바오 선교부의 도미나도로 캐데이 2세 장로와 레스티투토 바하린 장로는 비회원 부모를 둔

최근의 개종자이다. 필리핀의 12개 선교부 산하 대부분의 선교사는 필리핀인이다.





라드밀라 라노비치는 유고슬라비아에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스위스에 남기로 결정한 것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될 줄은 몰랐다.

라드밀라 라노비치

스스로 발견함

케네스 에스 로저슨

라드밀라 라노비치는 유고슬라비아에서 학교를 다니느니 차라리 부모와 함께 스위스에 남아 있겠다고 결정한 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라드밀라는 열 네 살 때 가족을 따라 유고슬라비아에서 스위스로 이주했다. 그녀는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니나 혹은 유고슬라비아에서 다니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4년 후 스위스에서 교회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었다.

“저는 무남 독녀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저를 유고슬라비아까지 보내시길 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라드밀라는 이야기한다. “당시를 회고해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제가 스위스에 머무르길 원하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드밀라는 유고 중부의 사라예보에서 출생해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곳에서 그녀는 종교란 불필요한 것이라고 배웠다. 아버지는 무신론자였고,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기는 했으나 별로 활동적인 신자가 아니었다.

“저는 심지어 성경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는 들어 봤지만, 저는 그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등장 인물인줄 알았어요.”라고 말하면서 라드밀라는 웃음 짓는다.

그런데 스위스의 학교에서 라드밀라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앙에 열성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라드밀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및 인생의 목적에 대해 자문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펠란드인들의 한 조직을 통해 알게 된 펜팔 친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 펜팔 친구는 뉴질랜드 소녀로서 교회 회원이었다. 그 친구는 종교에 대해 언급한 적은 한번도 없지만, 스위스에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이 라드밀라를 찾아와 줄 수 있으리라는 이야기를 했다. 라드밀라는 다소 흥분이 되었다.

몇 달 뒤인 1974년 9월, 단정한 복장을 한 네 젊은이가 라드밀라를 찾아왔다. 라드밀라는 이렇게 말했다. “마침

잘 오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그 같은 환대를 받고 기뻐하던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라드밀라는 미소짓는다.

그러나 그들이 뉴질랜드에 한번도 간 적이 없으며 “몰몬”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라드밀라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라드밀라는 그들이 예의 바르게 일어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문 밖으로 나가면서 한 선교사가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크레시미르 초지츠를 알고 계십니까?”

그 한 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유고슬라비아인 모두가 크레시미르를 알고 있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진정한 스포츠 영웅입니다.”

1970년대 초, 크레시미르 초지츠는 브리감 영 대학교 소속 농구 선수일 당시 침례를 받았으며, 그 후 유고슬라비아로 돌아갔다. 고국에서 그는 유고슬라비아 농구 국가 대표 팀으로 활약하면서 유고슬라비아가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고 1980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산과 역할을 하였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그분에 대해 듣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라고 라드밀라는 말한다. 초지츠 형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선교사들은 그와 브리감 영 대학 및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지부에서 제공하는 영화 상영에 라드밀라를 초대했다.

아파트 건물 지하의 조그만 예배당으로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이니”(교성 93:36)라는 표어였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종교인들은 지적이지 못하며 심지어는 배우려고조차 않는다고 하는 가르침에 늘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 준 영화는 몰몬경에 관한 것이었다. “모든 내용이 제가 듣고 있는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제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는 듯했습니다.”라고 라드밀라는 당시를 회고한다.

개심한 순간부터 라드밀라는 다시는 흡연을 하고 싶지 않았다. 현재 그녀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물리 치료학 석사과정을 거의 끝마쳐 가고 있다.



“누군가가 제게 그것이 참되다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공부해 하나님께 여쭙어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독일어로 된 몰몬경을 한 권 받아서 집으로 가져가 선반 위에 올려 놓았다.

몇 달 뒤, 성탄절기 동안 라드밀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좀더 알게 되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으며, 사람들도 그리스도에 대해 더욱 자주 이야기하였다.

라드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때에, 기억속에 몰몬경이 떠올랐다. 라드밀라는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어가 어려워서였다기 보다는 회개 등과 같은 단어가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었거든요.”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라드밀라는 선교사들을 불러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두 명의 선교사가 명부에 있는 구도자들 가운데 누구를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해 영감을 간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라드밀라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선교사들이 다시 문을 두드렸을 때, 라드밀라는 문을 열어 주면서 또 한번 같은 말을 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라드밀라는 선교사 복음 토론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매주 몰몬경 10장씩을 읽고, 자신의 느낌을 적은 다음 선교사들과 함께 그에 대해 토론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분들은 이따금 제가 던지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성가신 질문들을 잘 받아 주셨습니다. 한번은 해당 주 동안 몰몬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은 함께 읽자고 하시더군요. 우리는 암몬에 대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들은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저는 영을 느끼기 시작하며, 몰몬경에 대한 새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자마자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암몬에 관한 이야기를 마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드밀라는 몰몬경에 대해 간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니파이삼서에서 구세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것에 관한 기록을 읽고 있던 중, 그녀는 갑자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며, 또한 구세주께서 실재하시는 분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고 더이상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한다. 선교사들이 다시 와서 그녀에게 성신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해 주는지 이해하도록 도와 주었으며, 라드밀라는 침례를 받으라는 선교사들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자, 이제 우리는 자매님께 복음 토론을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라고 선교사들이 말했다.

“몰몬경이 참됨을 알게 된 이래, 저는 모든 계명—즉, 십일조, 지혜의 말씀, 기타 모든 사항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 흡연을 하고 싶었던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라드밀라는 1975년 2월 22일 스위스의 쭈리히에서 침례받았다. 후에 그녀는 교회가 막 조직되고 있던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로 다시 이주했으며, 1981년 유고인으로서 처음으로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현재 라드밀라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물리 치료학 석사 과정을 거의 끝마쳐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교회 자료를 유고 도착어인 세르보-크로티안어로 번역도 하고 있다.

라드밀라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녀의 생활에 여러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한다. 한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지만, 이제는 그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자신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

사랑의 발전

본 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엘레인 엘 잭 자매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여성보다 더 위대한 여성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타인의 찬사를 받는 일과는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를 보살펴 드리고, 이웃을 돕고,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며, 또한 가정 안팎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104쪽)

사랑은 종석임

상호부조회에 있어서 사랑은 아치의 종석과 같습니다. 건축물에서 종석은 아치를 형성하는 다른 돌들이 제 자리에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석이 정확하게 놓여지지 않으면 아치는 무너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에 관한 생각과 사랑의 행위로 인하여 인간 사회가 결속되며, 인간이 구세주에게로 연결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을 실천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교회 공보부 지역 책임자이신 윌리엄 에스 에반스 형제님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셨습니다.

- 가족이나 친지, 워드 지부 또는 이웃과 지역 사회에서 시작한다.
-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거나 또는 자신의 재능이나 취미 또는 관심사에 맞는 봉사 활동을 할 기회를 찾는다.



• 학생들을 돕고 예술을 장려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장애자나 노인들 혹은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노력한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생활의 종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은 훌륭한 것과 더불어 성장함

예언자 몰몬은 사랑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고 정의하며,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모로나이서 7:47~48)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여성이 자비와 박애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가르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보다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심어 놓으신 연민의 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1984년도 상호부조회

교재, 영적인 공과, 제11과, 52쪽)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은 마치 근육과도 같아서 실천할수록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행위를 생활 습관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랑은 삶의 방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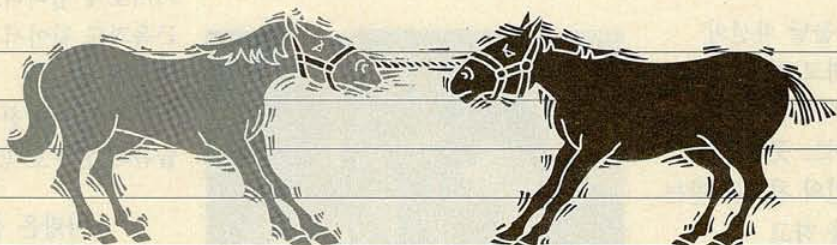
주님은 자비로운 사람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 밝혀 주셨습니다. 사랑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모로나이서 7:45 참조) 이 밖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 악의를 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감정을 상하게 해도 그들을 용서하며, 자신의 생각을 통제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또한 기쁘게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매우 건강한 자매가 몸이 아프게 되었는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감독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이 자매님을 도움으로써 축복을 받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의 은사를 받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몰몬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 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모로나이서 7:48)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특성을 구해야 합니까? *

온화한 가르침



마르더 맥팔런 와이저

독선이 아닌 인내를 배운 것은 결혼 생활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망 은 말일성도 부부들이 한두 번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 남편이(혹은 아내가) 나와 함께 발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동등하게 발전하고 있는가?”

결혼 초기에 나는 이러한 질문을 해보았으며 그 답이라고 생각한 것에 실망했다. 비록 내 남편은 훌륭한 가장이었으나 나는 종종 화를 내거나 조바심을 느꼈으며 남편이 내가 바라는 남편상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 주기를 바랐다. 내게는 남편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목표와 이상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아버지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경험을 했으므로 사위를 그리 비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첫 말씀은 나에게 찬 물을 끼얹는 것과는 같았다. “마르다, 네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너는 네 남편을 내쫓게 될 것이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러한 대답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예를 들었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얼마 전에, 나는 근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훌륭했던 결혼 생활을

저버린 한 말일성도 부인과 상담을 했었다. 그 부인은 남편이 교회의 모든 표준을 따르지 않는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지. 몇 년에 걸친 잔소리나 간청도 남편을 변화시키지 못했었다. 그 부인은 자기가 남편 곁을 떠난다면 남편이 자기를 다시 찾기 위해 그 자신의 생활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그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경해 줄 사람을 찾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이었지. 그들이 이혼을 한 후에 그 남자는 재혼했으며 그 부인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나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코 남편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제게 공연히 고집부리지 말고 제가 가진 이상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나는 방어적인 태도로 질문했다.

“아니다. 나는 네게 강요가 아닌 인도에 관해 말하려는 거다. 남편이 이룩해 놓은 것과 그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부드럽게 설득을 해보아라. 비판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라. 네가 목표를 빨리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네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조용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르다, 네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다. 네 남편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단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 나는 곤란한 입장이 되었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가 내가 꿈꾸어 왔던 남편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너는 두 마리의 쥐를 마차에 매놓은 농부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니? 이웃 사람이 농부가 마차에 오르는 것을 보고 비웃으며 질문했다. ‘그 조그만 쥐 두 마리가 마차를 끌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겠조?’ 농부가 대답했다. ‘왜 안되죠? 나에게서는 채찍이 있어요.’”

나는 잠시 속상한 것을 잊고 웃었다. 내가 마차에 앉아 있는 것을 뚜렷이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이와 비슷하게도 성공을 위한 채찍으로 분노를 사용해 왔던 것이다.

“맞아요. 제가 너무 강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하고 나는 말했다. “그러나 제가 인도받고 싶은 길로 인도해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건가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다. “너는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바로 한쪽 배우자가 자기가 올바른 사람과 결혼했다 하고 의심할 때 발생한다. 그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

“아버지!”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실망하는 것은 제가 그만큼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실성의 문제란다. 그런 생각을 갖는 데서부터 불성실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네가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너는 이미 불성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란다.”

나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번 더 억지를 부렸다. “그에 대한 내 결심은 영원해요. 매일매일 그가 신권 지도자로서 내리는 결정은 가족에게 영원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인내와 사랑 또한 영원하다.” 아버지는 경전을 펼쳐 읽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 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지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교성 121:41-42)

나는 이 구절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에 관해 신권 소유자를 위하여 씌여진 것이었다. 아버지는 왜 나에게 그것을 읽어주는 걸까?

“이 두 구절은,”하고 아버지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떠한 관계에서나, 특히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을 담고 있단다. 결혼에서 가장 큰 책임은 두 사람의 각기 다른 개성과 배경, 그리고 동기의 차이점들을 받아들이고 목적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란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단다. 그러나 네가 지적한 것처럼 결혼은 영원한 결심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나에게 소년 시절에 알고 지내던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사람은 애리조나주 북부에서 야생 말을 잡곤 했는데, 말들은 아무 데나 있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잡을 수 있었지만 그 말들을 잡아 훈련시켜 길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늦은 밤 그 농부는 물 웅덩이 근처에 있는 간이 우리에게 말들을 몰아넣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을 골라 면으로 만든 밧줄 한쪽에 목을 잡아 매고, 다른 한쪽에 힘센 하얀 나귀를 그들이 나란히 걸어갈 만큼 거리를 두고 매었다. 그리고는 그들이 타협을 하고 지내도록 사막에 내버려 두었다.”

“그 나귀는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 그 방향으로 갔단다. 말이 다른 길로 가려 하면 나귀는 버티고 서서 따라가지 않았지. 또 나귀가 다른 길로 가려하면 말이 순순히 따라갈 리가 없었지. 그러한 일은 그들이 지닌 차이점을 극복할 때까지 계속되었지. 이 주일 만에 그들은 음식과 쉴 곳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서야 그 말은 훈련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말과 나귀는 마치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온 동무처럼 지냈다.” 아버지는 말을 계속했다. “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빠뜨렸는데, 그들의 목을 묶었던 밧줄은 굉장히 부드러운 밧줄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와 인용된 경전구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귀처럼 고집을 부려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나는 알게 되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나귀와 말 사이에 매어진 밧줄처럼 우리가 목적에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확실하게 묶어주는 것이었다. 비록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항상 같은 방향으로 또는 같은 속도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 인내, 결심, 신앙으로 표현되는 부드러운 밧줄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 밧줄이 닳아 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만일 밧줄의 재료가 너무 거칠다면 배우자 중 한 사람은 고통을 참기보다는 그것을 끊어 버리려고 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정말로 내가 남편을 나의 목표와 이상으로 역지로 이끌고 가며 부담을 안겨 주는 독선가는 아니었는가?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즐기치게 이끌어 온 일에 남편이 감사한 마음을 느끼기나 했었는지 의아한 생각도 들었다.

나는 지난 6주 동안 새로운 이해심을 가지고 교리와 성약 121 편의 여섯 구절을 연구했다. 거기서 배운 원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한 배우자가 부부가 함께 가야 할 길에 대해 관심을 덜 갖고 있을 때,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나는 바로 그런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한 친구가 예전에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생활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내게 들려주었다. 일반 결혼을 한 앤과 밥은 성전 인봉을 목표로 정했다. 그들은 한동안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었으나 밥이 점차 관심을 잃어갔다. 그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일요일 오후에 텔레비전에서 축구 경기를 보는 데 열중하였다.

앤은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부엌을 정리하고 자신과 두 자녀가 교회 모임에 참석할 준비를 하였다. 앤은 밥에게 웃으며 인사한 후 집을 떠났다. 「비록 남편이 아이들을 집에서 돌봐 주겠다고 제의했지만, 앤은 성찬식에서 아이들 때문에 혼자서 무척 애를 쓰곤 했다.」

앤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신앙을 지키면서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했어요. 교회가 끝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멈춰 서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했습니다. 때때로 거실은 팝콘과 깡통으로 엉망진창이었지만 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허락을 받은 후 앤은 자신의 성전 앤다우먼트를 받을 준비를 하였다. 처음에 밥은 극히 부분적으로만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했으나, 나중에는 가족과 함께 다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성전에 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부부는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을 받았다.

앤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복음이 제 생활에 미친 좋은 영향을 남편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가족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족과 함께 발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말일성도 여성들은 신권의 강한 인도가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모두가 가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매주 가정의 밤을 반드시 갖도록 누가 해야 하는가? 남편만이 해야 하는가? 여기에 아내의 책임은 없는가? 아내는 자신의 영적인 발전보다는 남편의 영적인 발전을 꼼꼼히 측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이것이 많은 여성이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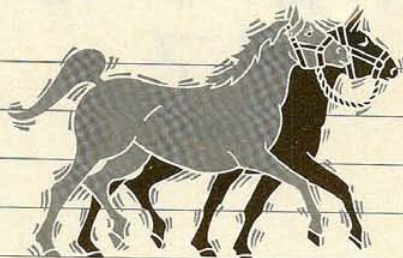
나는 지금 교리와 성약 121편 46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한 축복을 받는 데는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는 노력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영원한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가리라.”

나는 나를 부드럽게 깨우쳐 주고 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준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부부의 1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 내가 나눈 깊은 사랑과 존경은 바로 아버지의 조언이 가져다 준 것이었다. 나는 독선적으로 행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신 조언을 되새긴다. “마르다야, 네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다. 남편도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고마워요, 아버지. 아버지가 옳았어요. *

마르다 맥팔런 와이저 자매는 유타 델타 스테이크, 델타 제7와드 회원이다.



나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악화시키는 분노 및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버릴 수 있다. 일주일에 하나씩 새로운 제안에 집중하여 시도해 보면 그 제안들이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놀라게 될 것이다.

1. 부정적인 생각을 삼가한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삼가한다. 대신에 여러분이 아내나 남편에게 감사하거나 좋아하는 점에 관해 생각하고 목록에 적어 본다. 더 생각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추가시킨다.

2. 비판을 삼가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깎아 내리는 말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듣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비판하지 않도록 한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는 곳에서 아내나 남편의 긍정적인 점들을 이야기한다. 그러한 행동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시켜주며 자긍심을 높여줄 것이다.

3. 매일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긍정적인 일을 행한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만들어 주거나 또는 글을 적어 즐거운 마음이 들게 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항상 혼자 하는 가사 일을 도와 주는 등 창조력을 발휘하며, 여러분이 해오던

일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는다.

4.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기꺼이 투자하려는 일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 사랑이란 하나의 일을 부부가 정확히 반씩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양을 측정하는 버릇을 삼가한다.

5. 요구를 하거나 최후 통첩을 하지 않는다. 최후 통첩은 고집과 분노를 가져 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6. 온유한 마음을 지니도록 노력한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연약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온유함은 실제로는 강한 것이다. 온유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이웃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7. 경전에서 사랑과 자비에 관한 참조 성구를 찾아 연구한다. 그러한 성구는 영원한 사랑에 관해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하워드 시 맥팔런 형제는 마르다 와이 자매의 아버지이며 의사이다. 그는 유타 조던 스테이크의 말일성도 약물 남용 방지 프로그램의 지역 책임자와 조던 리버 성전의 성전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다.

“대수롭지 않던” 성구

김 알 버닝햄
하워드 시 맥팔런

여러 해 전, 어느 주일의 주일학교 공과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 나는 공과가 교리와 성약 열편에 해당하는 분량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랐다. “그 짧은 공과 시간에 우리는 그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없어.”라고 나는 생각했다. “몇 편 정도는 그냥 뛰어넘어야 될거야.”

그 주 동안 처음에 나는 111편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굳혔다. **어리석음, 보화, 금이나 은, 옛 주민** 등과 같은 단어가 명확하게 나에게 와닿지 않았다. 솔직히 나는 그것들이 모두 무엇에 관한 것들인지 이해하지도 않았으며, 또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 주의 주말이 다가오자 나는 교리와 성약 111편을 다시 읽고는 **어리석음**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아마도 그것은 대관장단이 매사추세츠주의 살렘으로 간 것과 관련이 있어야 했다.

그 계시에 관한 요약 설명이 있는 머릿말을 읽고 이 사건에 대해 좀더 연구했을 때, 나는 버기스라는 사람이 커틀랜드로 와서는 자기가 많은 돈이 숨겨져 있는 살렘의 한 집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았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다른 사람들은 그 돈을 찾아 교회를 빚터미에서 구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렘으로 갔다. 그러나 버기스가 돈이 숨겨져 있는 집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모두가 그 여행이 어리석었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되기는 했으나 주님은 그 여행을 “불쾌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교성 111 : 1 참조) 주님은 그들이 찾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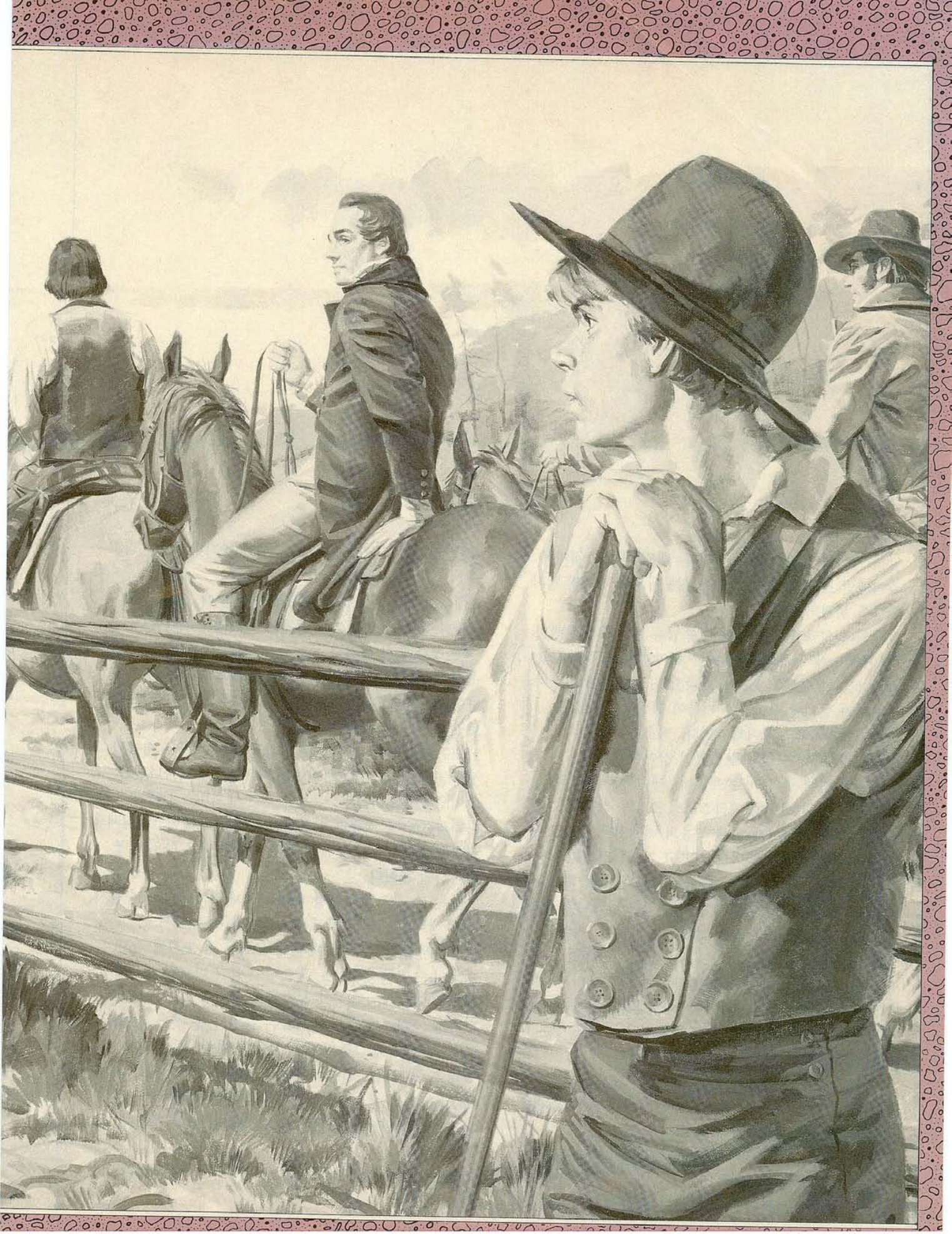
금이나 은 이외의 다른 보물이 있음을 요셉 스미스에게 상기시켜 주셨다. “나는 시온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줄 보화를 이 도시에 많이 간직하여 두었도다. 또한 이 도시에는 백성들도 많으니, 때가 이르면 시온의 유익을 위하여 너희의 도움을 얻어 저들을 모으리라.” (교성 111 : 2)

연구를 계속하며 나는 선교사 에라스투스 스노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스노우 장로의 일지에 의하면, 1841년(교리와 성약 111편이 발표된 지 5년 후)에 그가 나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하이람 스미스를 비롯한 다른 선교사 몇 명을 만났다. 하이람은 스노우 장로와 그의 동반자 윌리엄 로우에게 집으로 가지 말고 살렘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도록 했다.

“그들은 1836년에 그 백성들에 관하여 주어진 계시의 사본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계시에는 “주님께서 그의 때에 왕국으로 불러 모을 사람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그들은 지금이 주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스노우 장로는 기록했다. 따라서 그는 살렘으로 갔다. (에라스투스 스노우 일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과, 3-5쪽)

그 대수롭지 않던 성구가 점점 나의 호기심을 돌고 있었다. 기록은 스노우 장로가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그럼 개종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교회에 어떤 공헌을 했을까?

갑자기, 나는 내 가족의 계보 기록에서 본 내용이 생각났다. 고조 할아버지 나다니엘 애쉬비는 1805년 살렘에서 태어났다. 아마 그는 스노우 장로가 복음을 전할



당시 거기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형님의 집에서 찾아냈던 조그만 갈색 책에서 나는 애쉬비 가족의 역사 기록을 뒤적거렸다.

교리와 성약 111편 9절에서 주님은 예언자가 살렘의 “옛 주민...에 관하여 힘써 조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해안 도시 살렘은 1626년에 세워졌다. 1663년에 앤소니 애쉬비가 살렘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앤소니는 나다니엘의 6대조 할아버지였다. 앤소니 이래로 애쉬비가의 6대가 살렘에 살았던 것이다.

조그만 갈색 책(로버트 애쉬비, *애쉬비가의 조상*, 1941년)에는 “1841년에 에라스투스 스노우 장로와 다른 사람들이 이 가족에게 참된 복음의 메세지를 전했으며, 그들은 이를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나다니엘과 그의 가족에 관한 기록을 읽었을 때, 나는 스노우 장로와 그의 아내가 살렘에 있는 나다니엘 소유의 집에서 2년 동안 집세 없이 살았음을 알았다. 아마도 선교사들에게는 그것이 금보다 더 좋은 보물이었을 것이다. 1843년 가을에 애쉬비 가족은 나부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스노우 장로 가족과 커다란 2층집을 공동으로 사용했다. 애쉬비 가족은 그들의 재산을 성전을 짓는 데 헌납했다.

애쉬비 가족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순교하던 날, 나부에 있었다. 그들은 예언자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나다니엘의 한 아들은 1844년 6월, 예언자가 카테지로 가던 도중에 자기 아버지의 정원에 들리셨다는 것을 기록했다. “나는 귀하게 생긴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찬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아 있는 그를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라고 그 아들은 기록했다.

애쉬비 가족은 브리감 영이 변형했을 때, 회중 속에 있었다. 나다니엘의 아들 벤자민은 이렇게 기록했다.

“브리감 영의 몸집과 목소리, 그리고 얼굴 등 그의 모든 것이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요셉 스미스처럼 변형되었을 때, 나는 요셉 스미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애쉬비 가족은 나부의 자기 집을 떠나 서부로 향했던 사람들 중에 있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나다니엘은 아이오와에서 죽었다. 그러나 수잔 애쉬비는 11명의 자녀와 행군을 계속하여 평원을 건너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그 애쉬비의 딸 중의 하나가 바로 나의 증조 할머니인 것이다.

나는 조그만 갈색 책을 내려놓고 내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성구에 시선을 돌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에게 줄 보화를 이 도시에 갖고 있으니... 또한 백성들도 많으니... 때가 이르면 시온의 유익을 위하여... 저들을 모으리라.”(교성 111:2)

요셉 스미스와 다른 형제들은 금과 은을 찾아 살렘으로 갔었다. 그러나 그들이 찾은 보물은 개종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통하여 나의 생활과 나의 형제, 자매, 사촌,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나다니엘 애쉬비의 후손들의 생활이 많은 축복으로 가득 차 왔던 것이다. *

김 알 버닝햄은 유타주 바운티폴 센트럴 스테이크 회원이다.

당신은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당신은 훌륭한 친구, 형제, 자매, 아들 혹은 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듯이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각 상황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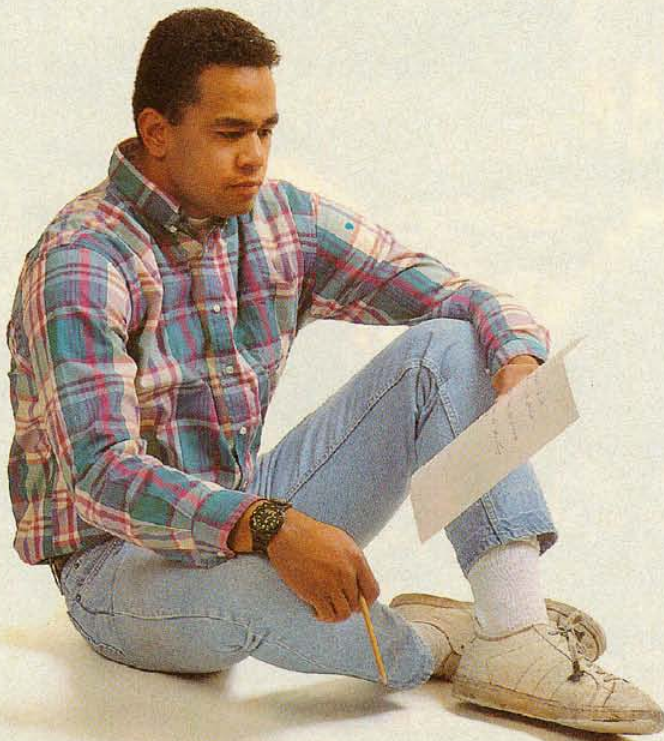
1.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를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2. 당신은 비밀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망신시키려고 비밀을 누설하지는 않습니다.
3. 당신은 한번 말한 것은 실천합니다. 당신은 친구 및 가족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고, 정직한 심일조를 내며, 일반적으로 시간을 잘 지킵니다.
4. 당신은 다른 사람이 성취한 것을 자신의 공로로 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취했거나, 당신이 부탁한 것을 해주었을 때 그들을 자연스럽게 칭찬합니다.
5. 당신은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나면 당신의 행동을 분석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6. 당신은 정말 화가 났을 때에도 거칠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심한 충돌이 있을 때라도 친구와 완전히 절교하지 않고,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아도 기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며, 형제나 자매간에 말다툼이 있을 때라도 그들을 증오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7.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인내하려고 노력합니다.
8. 당신은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솔직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과 충고를 구하며, 기도를 통하여 자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문을 구합니다.

이제 “예”라는 대답이 몇 개인가 알아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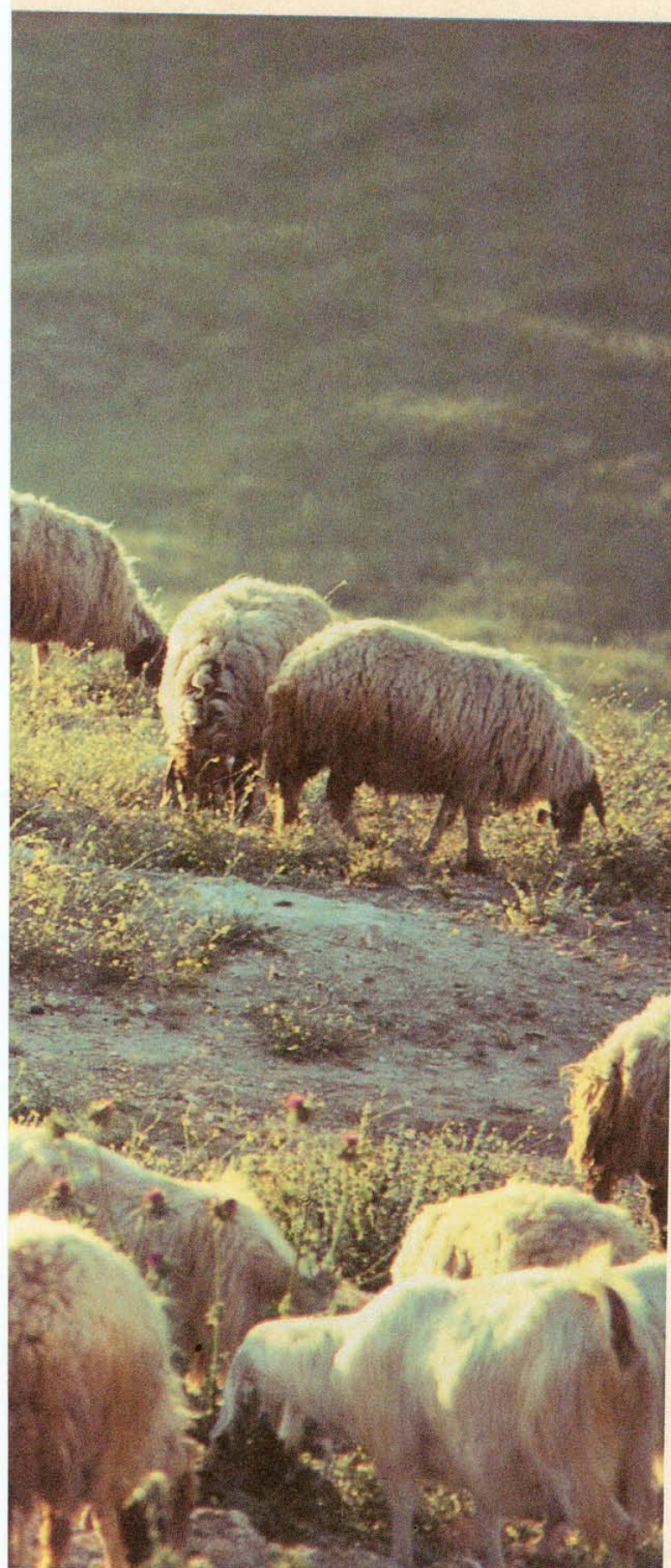
만약 “예”라는 답이 일곱이나 여덟이면, 훌륭한 것입니다! 당신은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으며, 그들 또한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만약 다섯 내지 여섯이면,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니오라고 대답한 부분에 조금 조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다섯 이하라면, 노력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이러한 긍정적인 특성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예수님이 살았던 땅

제 1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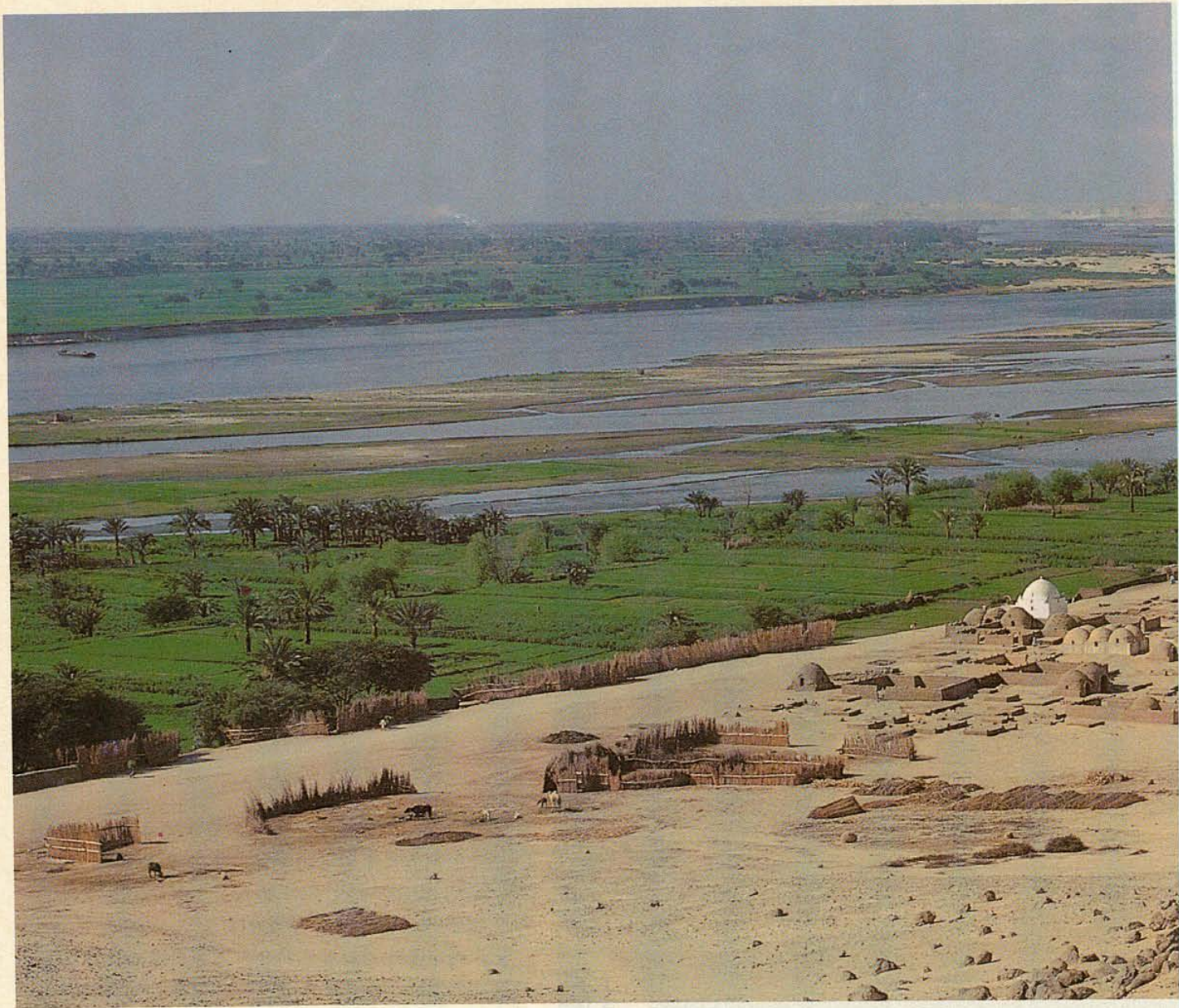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베푸신 성역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그 일은 바로 길이가 240킬로미터, 폭이 60 내지 140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땅에서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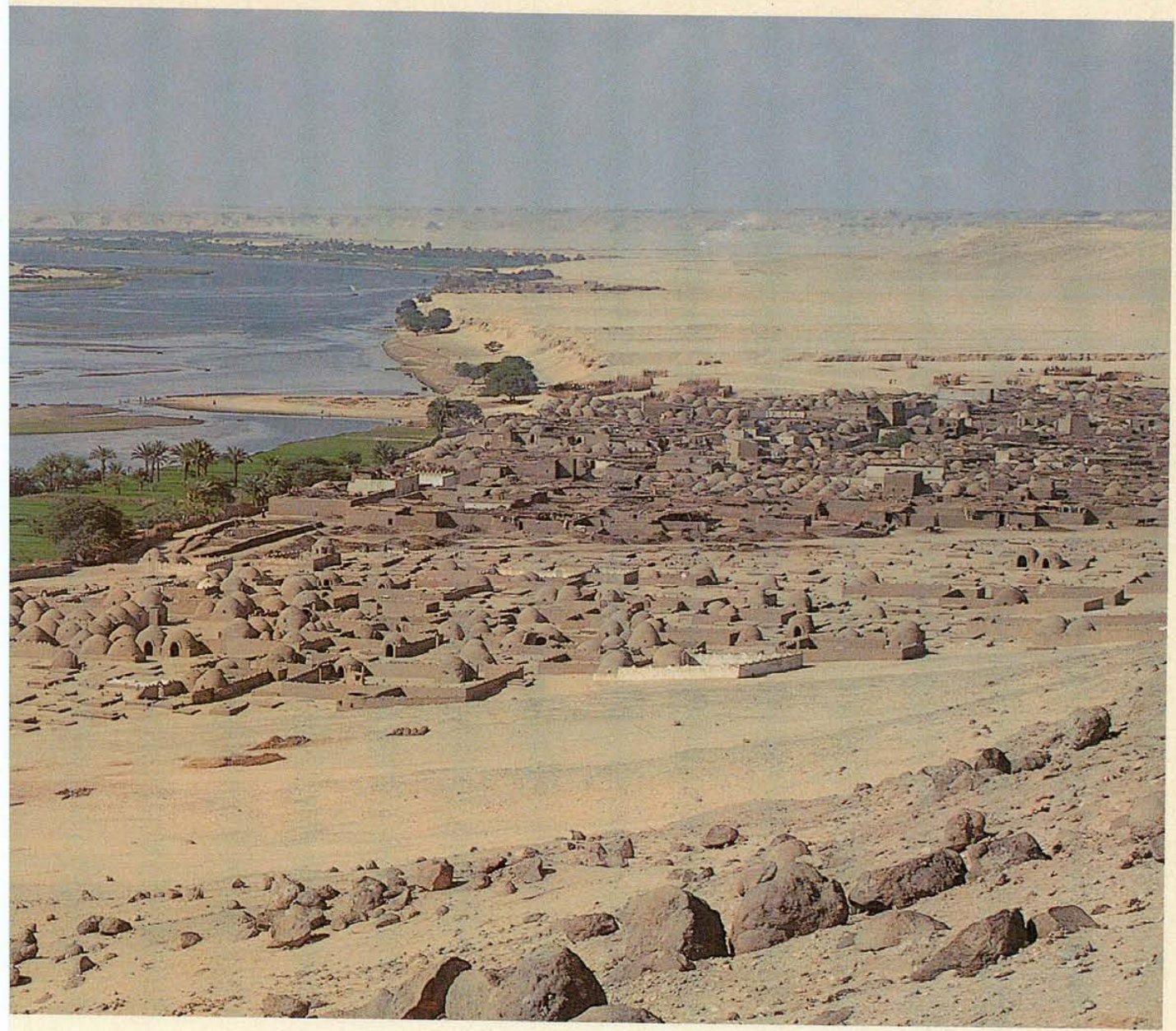
물론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그의 가르침과 인간으로서 겪으신 경험은 그가 살았던 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양, 그물, 연자 멧돌 및 성전 등 이 모든 것이 그의 생활과 가르침에 등장한 사물들이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는 세리와 목자, 어부, 귀족들이 있었다.

메시야가 살았던 곳은 과연 어떤 땅일까? 이번 호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생활하셨고, 성역을 시작하신 곳을 사진으로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는 사망과 매장을 포함한 그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물과 장소를 살펴계 될 것이다.

출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여기에 나오는 사진들은 예루살렘의 리처드 클리브 박사의 사진 보관소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 둔다.

“하나님의 떡” 또는 “생명의 떡”(요한복음 6:31-35)이라 불리운 예수께서는 히브리어로 “떡으로 지은 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오늘날까지도 사막에서 쓰는 머리장식을 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평야 건너편에 현대의 베들레헴이 보이고 있다.

헤롯 왕이 아기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으나(마태복음 2:16 참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마태복음 2:13) 하라고 했다.

예수께서 애굽의 어느 곳에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옥토와 사막이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이러한 광경(위)이 요셉과 그의 가족이 피신했던 곳의 광경과 매우 비슷할 것이다.

마태가 지적한 대로, 애굽에 머무른 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드라는 예언을 성취한 것이었다.(마태복음 2:15 참조)

예루살렘의 템플 마운트(위)에서 오늘날, 서기 690년에 처음 건축된 이슬람 사원의 바위로 된 둥근 지붕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옛날에 헤롯 성전의 터였다. 그 성전은 비록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완성되었지만, 그분은 성전 구내에 다른 건물이 건축되는 작업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나사렛(우측)은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에서 돌아와 살았던 당시의 나사렛보다도 훨씬 크다. 그러나 여러가지 면에서 그 마을의 고유한 특색은 여전히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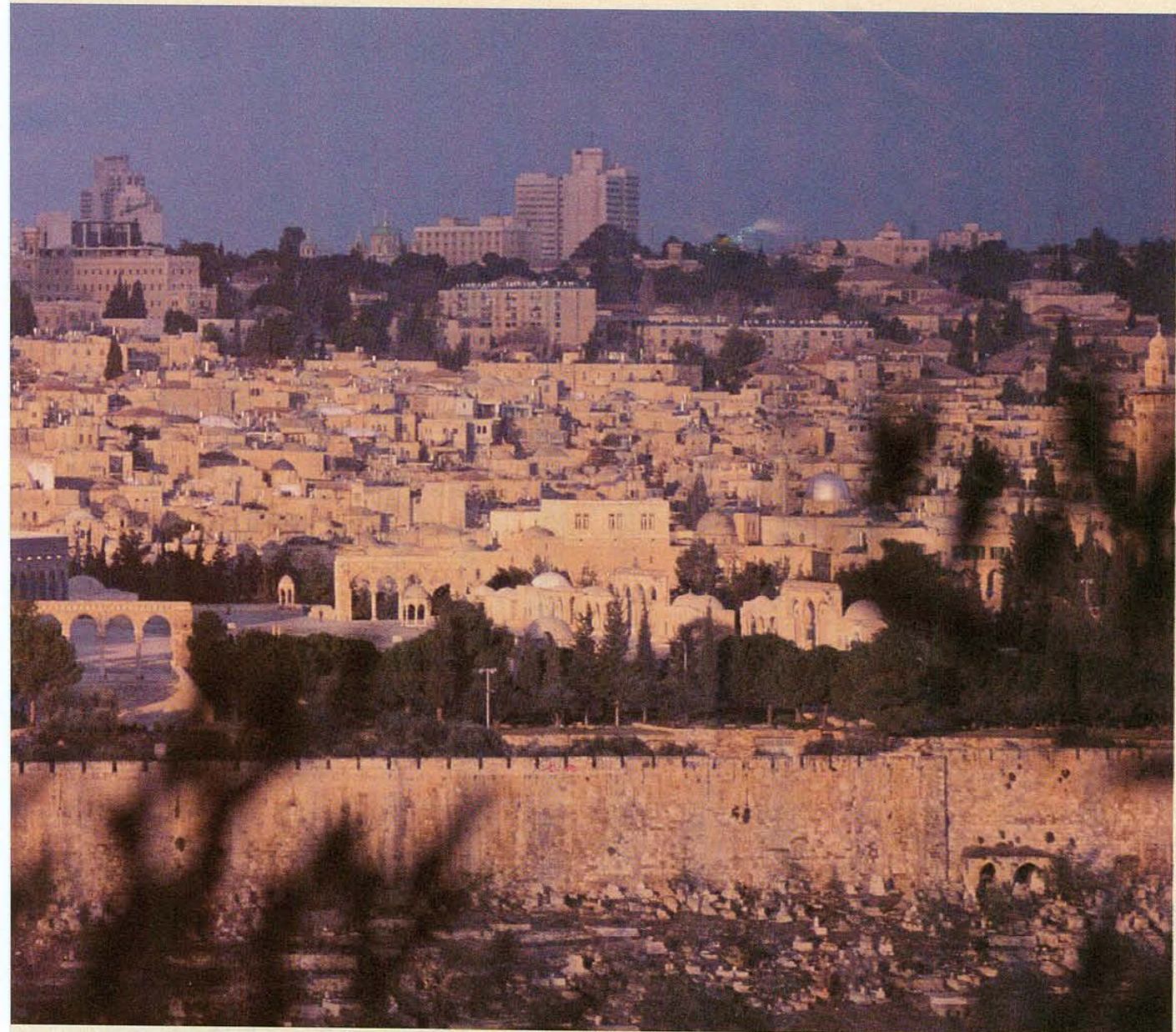
있다. 예수님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시장과 우물이 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베드로전서 1: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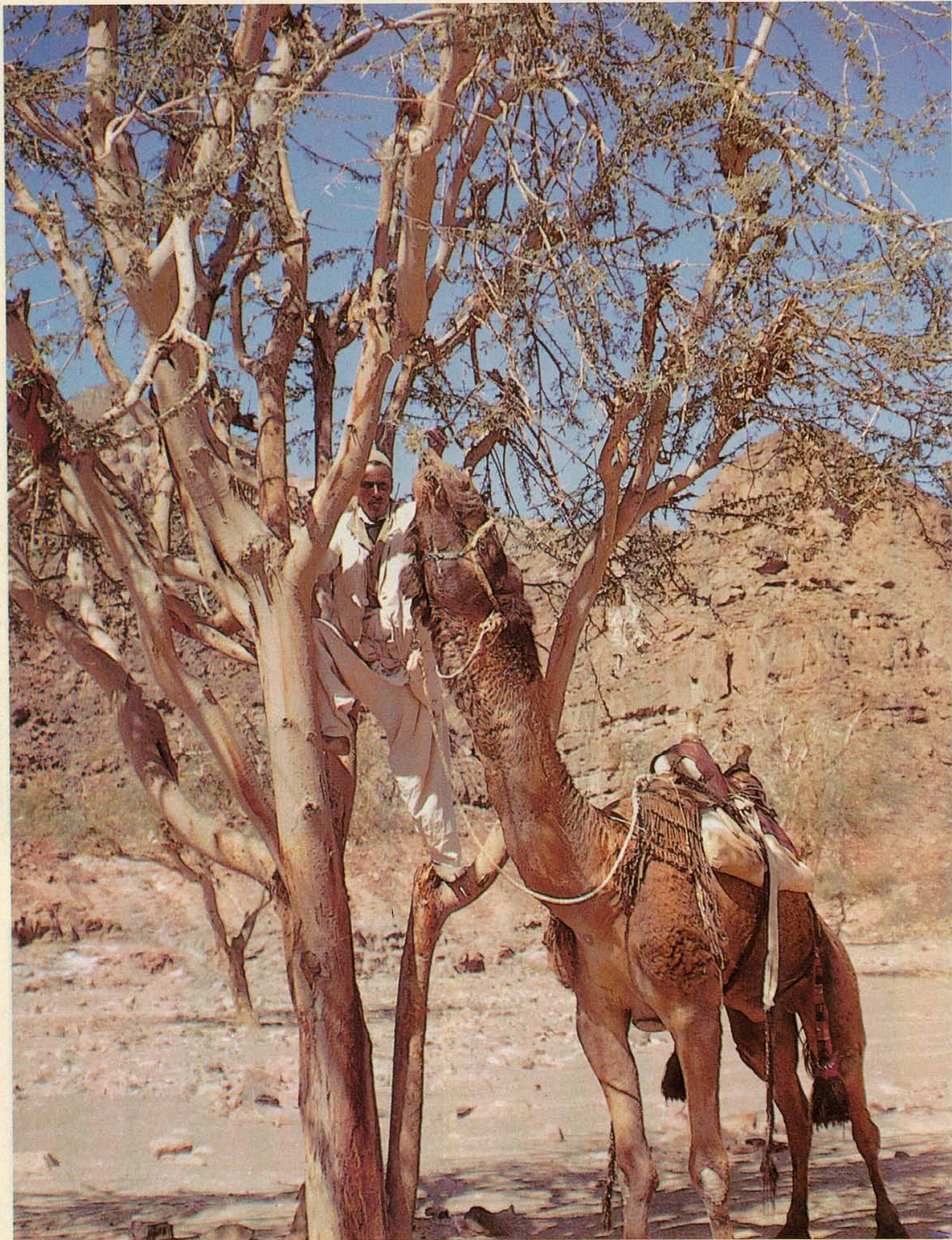
성경 시대나 현대나 모두 혼한 야생 양귀비는 그 아름다움이 빨리 없어지며 생명이 짧은 전형적인 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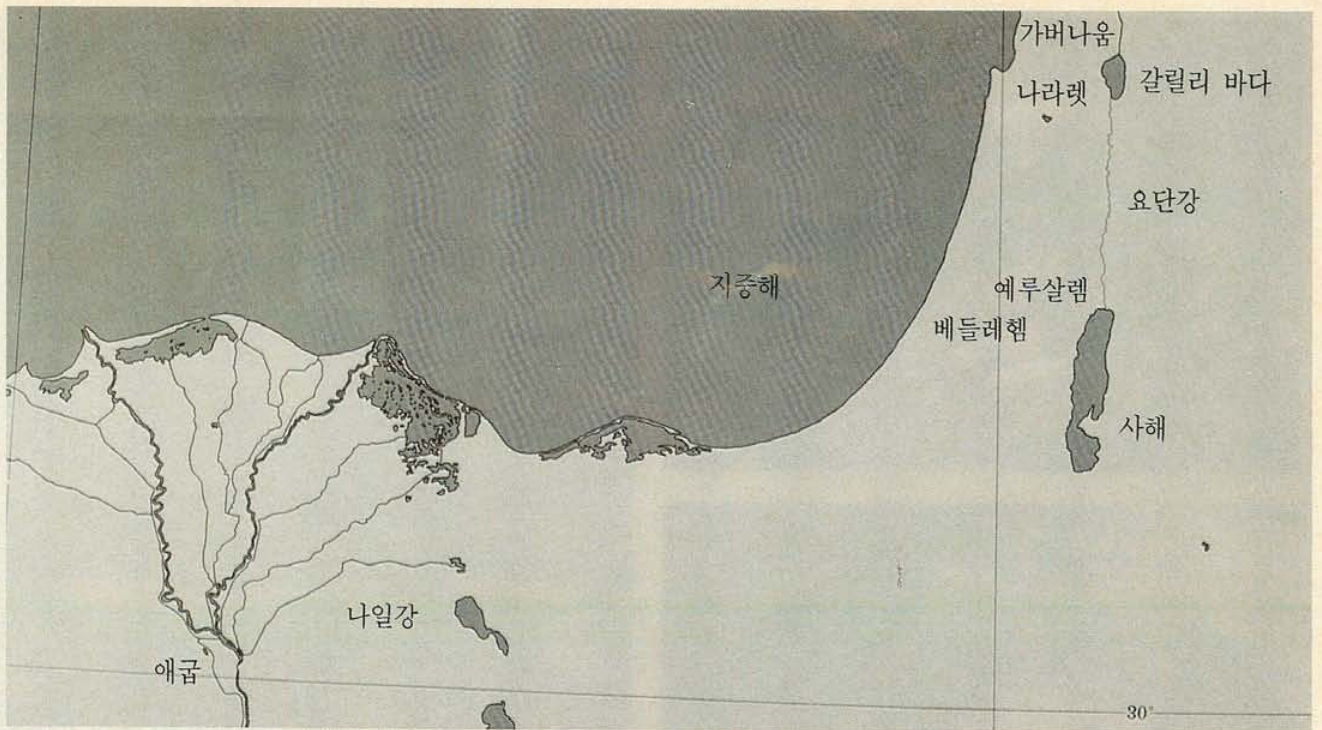
현대의 기술은 크게 발달하였지만 낙타는 성경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성지를 여행할 때나 일할 때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요한도 이 동물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낙타 털로 짠 옷을 입었으며(마가복음 1:6 참조), 예수께서도 이 동물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태복음 19:24) 후일 그분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마태복음



PHOTOGRAPHY BY MATHILEEN E. LUBB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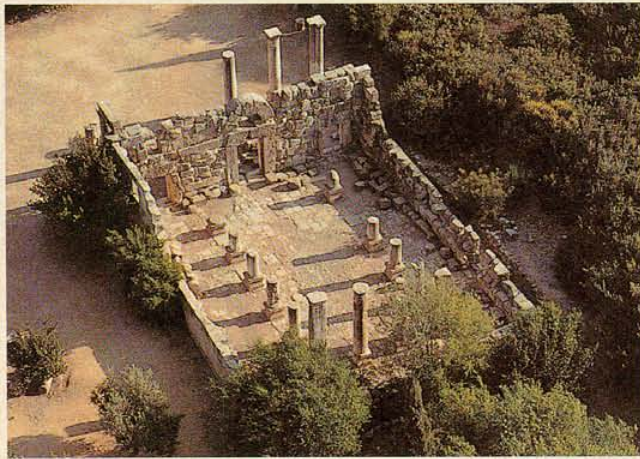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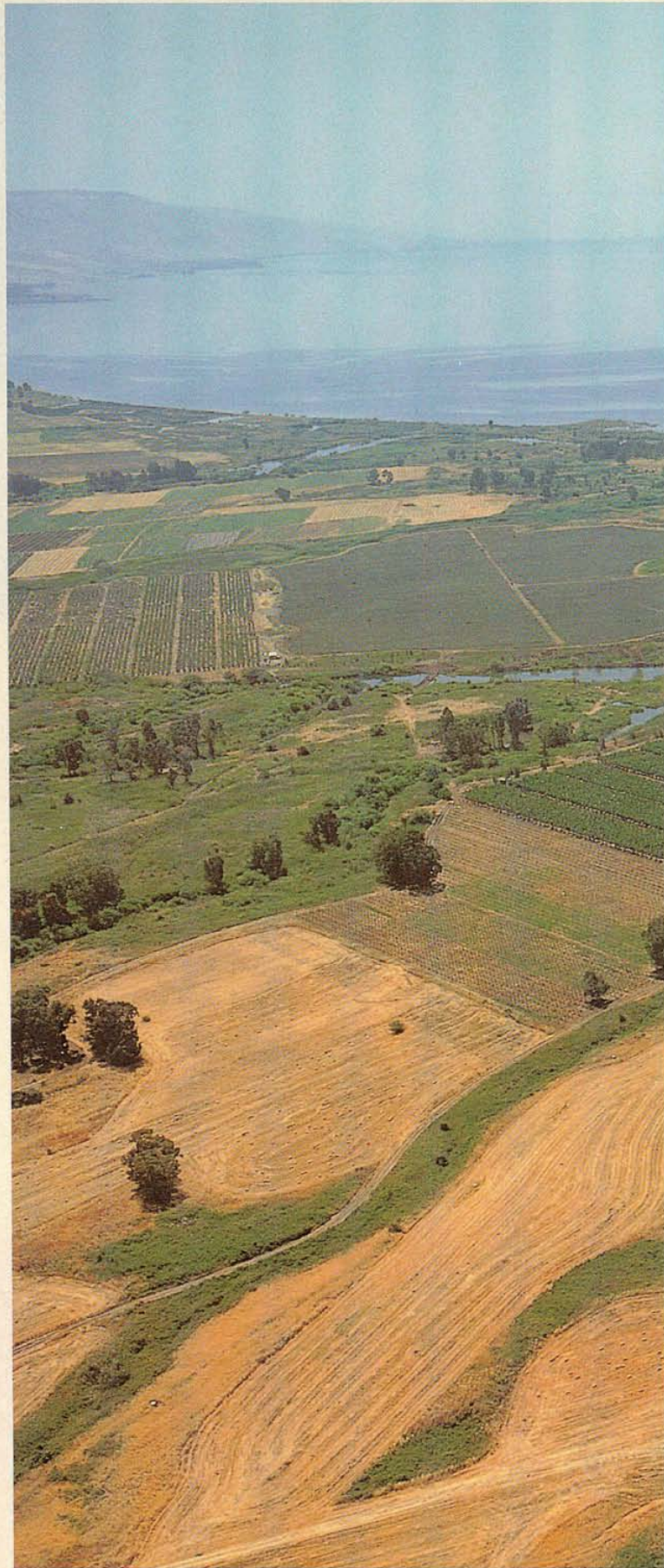


23:24)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비난하셨다. 이 특별한 낙타가 아카시아 나무를 뜯고 먹고 있다. 주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성막과 이에 사용되는 가구들의 재료인 “조각” 목이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로 된 것이다. (출애굽기 25:5, 10, 13, 23, 28 참조)

성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상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이 아름다운 곳(우측)에서 남쪽으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살고 계셨다. 예수님 당시의 가버나움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번창하고 인구가



밀집된 지방으로 아마 그 수는 만명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다. 주요 산업은 어업으로 오늘날도 그 당시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배 안에서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다. (위) 어부였던 두 형제들로서 가버나움에 살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북부 지방의 케파르 바렘에 서기 2세기경에 세워져 오늘날까지도 잘 보존된 이러한 건물과 비슷하게 생긴 회당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모이는 어떠한 곳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뒷 표지 참조)*





“지혜로운 길”

질 헤밍

대 학교 1학년이 되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하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스스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나 자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흥분이 되었다. 나는 대학 생활에는 단순히 수업을 받는 것 이상의 많은 흥미거리가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으며, 대학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흥미있는 활동에 푹 빠져 들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술하게 많은 날을 밤이 늦도록 보냈다.

일요일에는 수업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 밤은 특히 문제였다. 이전에 100퍼센트 참석하던 교회의 참석률은 과거지사가 되었다. 안식일 모임이 시작되는 9시까지의 잠을 아주 조금밖에 못잔 상태였기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졌다.

물론 늦게나마 나른한 몸을 억지로 이끌고 교회 문까지 갈 수 있던 아침엔 그 딱딱한 나무 의자에서라도 기지개를 켜고 잠이 들 것만 같았다.

말할 나위도 없이 나는 모임에서 얻는 것이 별로 없었다. 마침내 나는 어느 일요일, 내가 계속해서 2주일이나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구약을 읽기 시작한 것 같다. 내가 교회 모임에서 얻는 것이 없었다면, 최소한 나 혼자서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어야 했다.

그때에 나는 이전에 내가 읽으면서 표시해 두었던 경전 구절을 발견했다. 그 말씀이 나를 잡아 흔들어 깨우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훈계를 굳게 잡아...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잠언 4 : 11, 13~14)

그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발 철 좀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나에게 지금까지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왔었다. 나는 “정직한 첩경으로” 인도받아 왔던 것이다. “나는 어떠한 것이 옳바로 행하는 것인지와 알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내 자신의 영성을 위해 저야 할 막중한 책임 의식을 깨달았다. 나를 “사특한 길”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의 책임이 아니었다. 나 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때로 밤 늦도록 잠자리에 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안식일을 온전히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도 매우 많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성경 구절을 읽은 날 이후로 안식일에 졸지 않기 위해서는 토요일 밤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것은 내 생활에서 첫번째 우선 순위가 되었다. *



루이스 알베르토 페리조

지역 대표

네스터 쿠베르토

주님은 이 말일의 교회 회원들에게 사려깊게 그들의 세상적인 지도자를 선택할 것을 권고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직하며 현명한 자를 힘써 찾아 구하라. 선한 자와 현명한 자를 받들지어다.”(교성 98:10) 주님의 예언자들은 성도들이 그들의 지역 사회에 참여하여 국법을 수호할 선한 사람을 선택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여 왔다.

우루과이, 플로레스에 사는 지역 대표인 루이스 알베르토 페리조 장로는 현명한 지도자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다. 몇 년 동안 그는 지방과 중앙 정부에서 정치에 관여해 왔다. 지금 플로레스 주민들은 그가 보인 현명한 지도력에 감명을 받아 그를 존경하고 있다. 지난 번 우루과이의 선거에서 페리조 장로는 플로레스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50세의 페리조 장로는 평생을 플로레스에서 살았다. 그는 아내 프리다와의 사이에 두 자녀, 에벨리네와 루이스 알베르토 이세를 두고 있다. 지방의 사업가 및 지역 사회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페리조 장로는 그와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아 왔다. 교회를 위해서는 지역 대표로서, 일반인을 위해서는 국회 의원으로서 그는 그 나름대로 정부와 복음이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정당 활동과 교회 활동은 모두가 별개의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교회는 비정치적이며, 정치적인 결합 또한 없습니다. 회원들에게 선한 시민이 되어 책임을 다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복음을 주제로 하여 이야기하지,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 또는 활동과 관계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루과이는 오랫동안 종교와 정치의 자유를 보장해 왔다. 이 나라는 건국 이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고수해 왔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는 1947년에 이 나라에 들어와 1950년대에는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1960년대까지 교회는 이 나라에서 가장 활동적이며 건실한 교회가 되었다. 오늘날 인구 삼백 삼십만 중에서 오만 명의 교회 회원이 있다.

우루과이에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짐에 따라, 페리조 장로와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이룩한 업적은 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오해의 장벽을 허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들이 보인 모범은 교회의 성장과 복음 전파에 기여를 하였다.

“내가 지닌 믿음과 신앙 생활에 대해 내 동료들은 존경과 진정한 찬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라고 페리조 장로는 말한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회원들이 공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줍니다. 지역 사회와 정치



페리조 장로와 자매가, 루이스 알베르토 이세(좌측),
에벌리네(우측)과 함께 있다.



활동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기 때문에
방해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가진 원리
때문에 존경을 받아 왔습니다.”

페리조 장로는 1966년에 정당 대의원으로 뽑혔으며,
1985년에는 플로렌스 부시장에 출마하였으며, 1989년에
국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역 사회의
여러 방면에 참여해 왔다. 체육계 인사로서 그는 지방
체육 위원회에서 봉사했으며, 15년 동안 펜야롤 축구
클럽의 회장이었다. 교육계를 위해 그는 자녀가 속해 있는
학교의 학부모 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서기로 나중에는
위원장으로 봉사했다. 또 그는 경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활약을 하였다.

그는 또한 교회에서도 활동적이다. 페리조 장로는
1963년에 침례를 받았다. 1967년에 플로렌스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는 두라즈노 지방부장으로
9년 동안 봉사했으며, 9년 이상을 두라즈노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다. 1989년 이후로는 지역 대표로
봉사하고 있다.

페리조 장로는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매일매일 결정을 내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복음의 원리를 담고 있는 법안이 상정될
때, 비록 최종 결정이 당의 정책에 맞춰 내려지더라도
저는 그 원리에 입각해 그것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가 많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그의 주된 관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은 그가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도와 주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를 성취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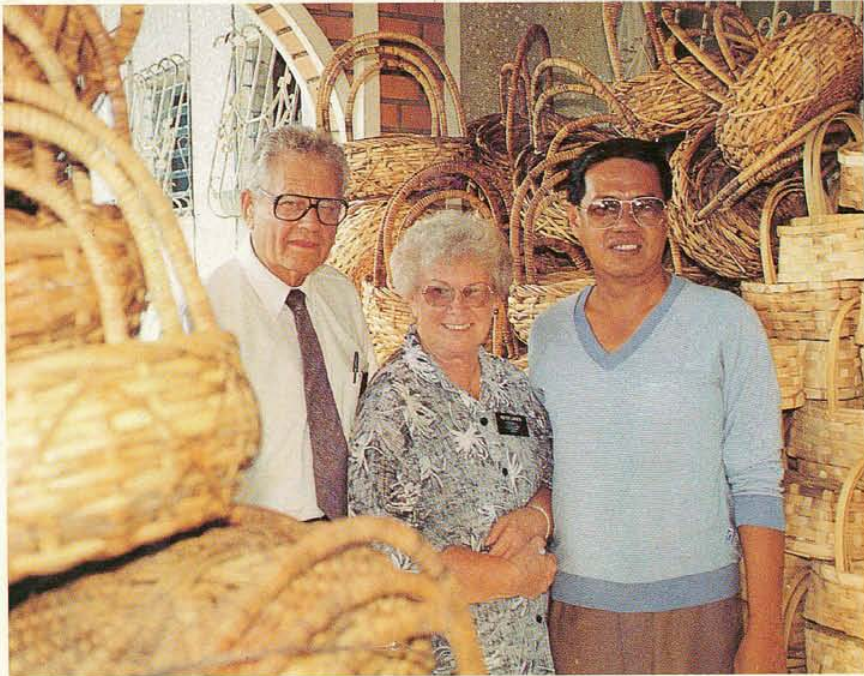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학문에도
정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복음입니다.”

페리조 장로는 교회 회원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바로 오늘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과정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을 잘 계획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의 원리를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그런 원리에 따라 생활한
결과까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범을 통해 그들은
효과적인 전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와 법률에 관한 교회의 견해가 교리와 성약에 나와
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자기의 고유하며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정부의 법률로 보호받는 동안, 각자가 속하는
정부를 지지하며 옹호할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교성
134:5)

성전에서 권고한 내용의 중요성을 페리조 장로는
매일매일 우루과이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서 확인한다.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를 주의깊게 살피고 자신들을
인도할 가장 훌륭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일은 모든 회원들이 지니는 책임입니다.” *

네스터 쿠베르토는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하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스테이크 부장이다.



“교

회에서는 우리에게 자립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필리핀의 폴 에프 부노안 형제는 말한다. 부부 선교사인 리그랜드

장로와 베티 라슨 자매는 민다나오 섬의 회원들에게 고리버들나무 바구니를 만들어 팔도록 권고해 오고 있다.

“필리핀 성도들”, 8쪽 참조.